

WINTER

WONIK MAGAZINE 2020 VOL. 60

WONIKIN



행복 - 즐거움° 즐거움을 느껴라

Theme.

행복 - 즐거움

HAPPINESS



“행복은 바다야!”

section I.

어느 작가는 군고구마에 버터를 발라먹으며 외쳤다고 합니다.
“행복은 ‘빠다(butter)’야!”

이것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닐까요?
나에게도 이런 순간, 이런 행복 있지 않나요?

업무로, 인간관계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어떤 하루는 몹시 지치기도 하겠죠.

하지만 생각만으로 나를 확실히 미소 짓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 하나만 누릴 수 있다면,
행복은 그리 멀거나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득 당신의 일상에 스며있는 행복이 궁금해지네요.
새해에는 “행복은 OO야!”라고 자신 있게 외치며,
행복으로 성큼 다가가는 거예요!



WONIKIN

Winter 2020 v. 60

행복 - 즐거움 °
즐거움을 느껴라
HAPPINESS

Happiness
WONIKIN v. 60

사보기자단

- 원익홀딩스 소병오
- 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최예란
- 원익머트리얼즈 조수영
- 원익큐엔씨 이민희
- 원익 이기복
- 원익큐브 정은하
- 씨엠에스랩 박지현
- 위닉스 안희태
- 원익로보틱스 정희정
- 원익엘앤디 최세현
- 하늘물빛정원 이찬우
- 원익투자파트너스 최선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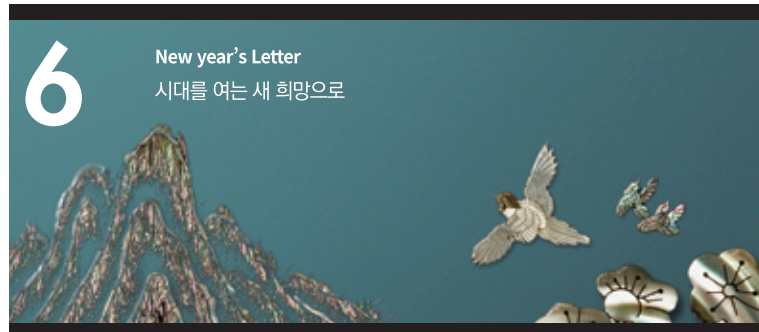
사보담당자

이호철 / 강무성 / 이효상
서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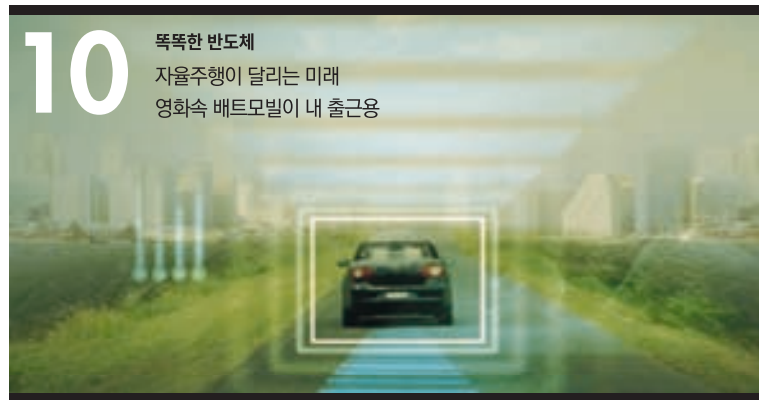
〈WONIKIN〉 통권 제 60호

발행일 2020년 2월
 발행인 박영규
 발행처 원익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기획 디자인 PEOPLE PAGE 02.6674-7845

사보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익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8 대표이사 신년 메시지
신년 메시지로 전하는 2020년의 비전



14 원익월드
지구 반대편 남아메리카에서의 한달
27박 29일의 남미대륙 여행

Cover Coloring

이유빈 사원
원익큐엔씨 | 인사팀

다음에 나올 사보가 겨울호라 계절에 맞추어 원익 사옥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눈송이를 표현하여 색칠해 보았습니다.



18 Boss vs. Leader
다시 한번 컨템 점프!
원익홀딩스 이승현 팀장



26 그웬잇팀
따로 또 같이
씨엠에스랩의 가치를 높이는 동행
씨엠에스랩 구매팀 & SCM팀



Great Global Company
꿈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만들다
월드디즈니

38 원익은 지금 ①
2020년, 원익은 이제 만개할 준비
2020 시무식

42 원익은 지금 ②
〈원익인〉과 함께, 빛나는 2관왕을 거머쥐다
2019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48 원익은 지금 ④
원익 꽃 필 무렵
원익 공채 6기 면접현장



56 원익은 지금 ⑥
눈길을 가르며 질주하는 쾌감
원익큐엔씨 스키 동우회



64 원익은 지금 ⑧
세계가 탐낸 로봇 핸드-
알레그로 핸드의 백 번째 계단
원익로보틱스 알레그로 핸드 누적 판매 100대 달성

52 행복일터
행복테마

68 News focus

77 Thanks for U

78 Coloring Event

참여해 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시대를 여는 새 희망으로 2020년을 이뤄내자

원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庚子年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 쥐띠 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 승진한 임원과 직원, 원익인 상 수상자, 그리고 공채 6기 여러분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사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원익을 생각하면 과연 그런 목표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당당히 세계적인 기업이 되자는 포부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지난 몇 년 간의 가장 큰 변화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열정있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선진기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평가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고자 하는 방향과 1등 기업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평가와 보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투명하고 공평한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 2년간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목표를 달성했을 때, 확실하고 공평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열정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 문화를 고도화시켜야 합니다.

회사는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발전 중입니다. 외부로부터 우리의 기업문화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기업문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가치 중 하나인 자유란 자신의 소속된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다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자유는 잘못된 자유입니다. 좀더 책임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왔던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 물결에 동참해 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 소재의 핵심부품이며, 2차 전지 사업, 로봇산업등도 계속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실패를 거듭한다고 하여 도전하지 않으면 20년 후에는 우리 원익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생존과 관련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익은 따뜻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통받고, 외로워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직 사회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칭찬과 격려가 인색하지만, 힘들더라도 노력해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앞뒤가 같아 부르는 것부터 특별한 2020년. 영리하고 민첩한 흰 쥐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원익이 글로벌 선진기업으로 도약하는 데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0.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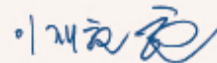
원익 회장 이 용 한

李 龍 漢

신년 메시지로
전하는
2020년의 비전

Happy New Year! 2020

2020년 우리 원익홀딩스는 신제품, 신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로 시장 위상을 확고히 하며 경영인프라와 조직문화 측면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추진합니다.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비약적인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이재현 원익홀딩스 대표이사

여느 때처럼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의 업무와 사고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시계 제로의 불확실 속에서도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서의 성장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 더 자유·소통·행복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격변하는 미래 환경에 맞게 우리의 일하는 방식, 우리의 사고의 틀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임창빈 원익큐엔씨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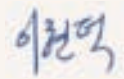
2020년은 재도약과 중장기적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원익큐브는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기에 한계를 정하지 않고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쇠신하는 큐브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수 원익큐브 대표이사

2020년은 매출중심이 아닌 고객(가치)중심 운영을 실현하며, 영동권 1위(원익브랜드)가 되기 위한 각 파트별 세밀한 기획이 필요한 해입니다. 권한이양과 행복매니저(행복전도사) 준비 및 실행을 통해 열린조직을 형성하여 각 직원들이 행복매니저로서 끊임없이 자기 일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나아가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 이 업을 통해 나의 성장발전 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잡념과 후회, 불안한 미래에 연연하지 않으며,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인드를 기를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재천 원익엘앤디 / 하늘물빛정원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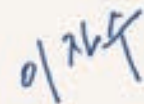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Global No.1 반도체/디스플레이 Platform Creator로의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이 꿈에 대한 출발선으로 외부의 우려를 극복하고 Proactive한 자세로서,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드는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이현욱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우리는 30여년간 생존해 온 것에 만족하지 말고, 희망찬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두 조직이 하나가 되어, 지역적인 차이, 사업분야의 차이, 기업 문화의 차이 등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장홍식 원익 대표이사

2019년은 씨엠에스랩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2020년에도 우리는 건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새로운 큰 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씨엠에스랩은 고객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직원들에게 먼저 사랑 받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수 씨엠에스랩 대표이사


우리의 사업은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이고 펀더멘탈이 강한 사업임은 자명하지만, 동시에 경쟁력이 없다면 도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가슴 설레는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우성 원익머트리얼즈 대표이사

2020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즐기며 실질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를 향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원익로보틱스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장경석 원익로보틱스 대표이사

우리는 도전이라는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루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경을 딛고 나아가면, 한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벤처캐피탈 최고의 회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시한번 전 임직원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용성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자율주행이 달리는 미래



영화속 배트모빌이 내 출근용

공대를 졸업 후,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현재 과학기술 전문 매체에서 객원기자로 활동중.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학기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80년대를 풍미한 추억의 영화 중 하나로 '전격 제트(Z) 작전'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주인공과 함께 대화하며 악당을 척척 물리치는 만능 자동차 '키트(KITT)'의 등장엔 당시 많은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그러면서 키트를 실제로 만나려면 먼 미래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1960년대에 탄생했지만 지금도 견제함을 자랑하는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자동차 '배트모빌(Batmobile)'은 또 어떤가.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되어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면서, 위험한 장소를 스스로 피하는 모습에 수많은 관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면서도 영화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판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십 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키트나 배트모빌은 더 이상 상상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자동차는 아닌 존재가 되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탑승자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동차의 등장이 그리 멀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들어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는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한다. 사람이 걷고 뛸 수 있는 비결이 두뇌가 내리는 명령에 의해 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반도체는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며,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반도체

사람이 걷고 뛸 수 있는 비결이 두뇌가 내리는 명령에 의해 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반도체는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며,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은 '이미지 센서'와 '라이다(LiDAR) 센서'가 담당하고, 저장하는 역할은 'DRAM'을 비롯하여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디스크(SSD)' 등이 맡는다. 그리고 판단하는 역할은 '중앙처리장치(CPU)'와 '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그리고 '신경망처리장치(NPU)' 등이 수행한다. 모두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반도체들은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탑승자의 명령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안전하게 운행하는 역할도 도맡아 하는데, 이를 상황별로 설명하면 △음성인식 기술 △증강현실 시스템 △5G 통신 △보안 시스템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음성인식 기술의 경우 영화 전격 제트 작전의 한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주인공은 키트에게 모든 지시를 '말'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성 명령만으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 및 실내 온도 조절, 그리고 와이퍼 작동 같은 기능을 제어한다.

또한 주인공이 자동차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시계에 탑재된 무선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키트를 자신이 있는 장소까지 호출하거나, 심지어는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키트에 명령할 때 자동차는 말하는 사람이 같은 편인지를 판단하는 장면도 나온다. 이 같은 음성인식 기술을 뒷받침하는 반도체로는 말하는 사람에 관계없이 여러 사람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화자독립형 음성인식 반도체'가 있다. 해당 반도체에는 인간의 청각기관을 모방한 청각모델과 뇌 인지기능을 모방한 잡음 제거 기능이 갖춰져 있다. 다음으로는 탑승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증강현실 시스템이 있다. 이 기술은 영화 배트맨에 가끔씩 등장하는 기술이다. 차선이탈을 경고하거나, 전방 충돌 위험을 경고하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관련된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인 배트맨이 배트모빌에 탑승한 채 달릴 때, 앞 유리창에는 주변 위치 정보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도로 상황 등을 알려주는 정보들이 홀로그램 형태로 떠오르는 증강현실 장면이 나타난다. 증강현실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로는 '유기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낮은 해상도로 인해 사용자에게 멀미와 어지러움을 유발했던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의 문제점을 유기 반도체가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스트레처블(stretchable)-**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휘어지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최종 단계라고도 불린다. 신축성이 뛰어나서 필요할 때는 길게 늘인 다음 시청하다가, 다시 짧게 줄이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꿈의 디스플레이라 할 수 있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기 반도체는 저온에서 용액공정이 가능한 차세대 반도체로서, 휘어지는 플렉서블(flexible) 기기나 펼쳐지는 스트레처블(stretchable)* 기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리콘 소재의 반도체와는 달리 유기 반도체는 물리적 충격에 약하고 유기용매에 불안정한 이유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 개발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에 개발된 유기 반도체는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 변환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음성 명령만으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 및 실내 온도 조절, 그리고 와이퍼 작동 같은 기능을 제어하는 것은 화자독립형 음성인식 반도체에 인간의 청각기관을 모방한 청각모델과 뇌 인지기능을 모방한 잡음 제거 기능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자동차 수리는 반도체만 교체하면 완료

5G 통신은 응답속도가 기존의 LTE보다 20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지연 없이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다. 데이터를 지연 없이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순식간에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역시 배트맨 영화를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온다. 배트맨이 탄 배트모빌이 빠르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악당이 설치한 장애물이 도로에 굴러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하지만 배트모빌은 그 찰라의 순간에도 용케 장애물을 피하면서 배트맨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실제로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LTE 환경에서는 차가 1m 이상 나아간 후 긴급제동 명령을 수신하게 된다. 반면에 5G 환경에서는 3cm도 채 나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정지신호를 받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5G 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로는 데이터 송수신용 모뎀 반도체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결합한 스마트폰용 통합 칩셋(chipset)이 있다. 두 반도체를 결합한 통합 칩셋은 전력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 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안 시스템을 꼽을 수 있는데, 영화 전격 제트 작전을 보다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뛰어난 컴퓨터 전문가인 악당이 키트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해킹하여 주인공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위협하도록 조작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네트워크 환경에서 작동한다는 것은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화에서처럼 해킹으로 차량을 원격 조정하여 탑승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반도체로는 보안 전용 프로세싱 칩셋이 있다. 항공기 비행 제어부터 외과용 로봇과 같이 오작동 시 큰 리스크가 동반되거나 인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고장 안전(fail-safe) 보중에 사용되는 반도체다.

이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해 알아 보았다. 전자 제품이 아닌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가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혁신적인 성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의 자동차 수리는 지금처럼 차를 카센터에 입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만 떼다가 가져다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본다.



비행기 탑승 13회, 버스 이동 수십 회, 건조한 사막과, 고산지대, 빙하, 아열대 기후를 경험한 3월 한 달. 남미 5개국 여행은 말그대로 이수라장의 중심이었다. 연일 매체에서 떠드는 남미 뉴스는 치안 상황이 안 좋고, 무너진 경제로 인한 잦은 파업 소식으로 여행 초반까지만 해도 마음 한편에는 걱정과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해외여행의 종착역인 남미를 먼저 다녀온 것은 감히 내 인생의 신의 한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여행은 무엇을 기대하든지 그 이상을 내어준다.

SOUTH

PERU
BOLIVIA
CHILE
ARGENTINA
BRAZIL



27박 29일의 남미대륙 여행

낭만과 열정, 신비로움이 가득한 지구 반대편 남아메리카에서의 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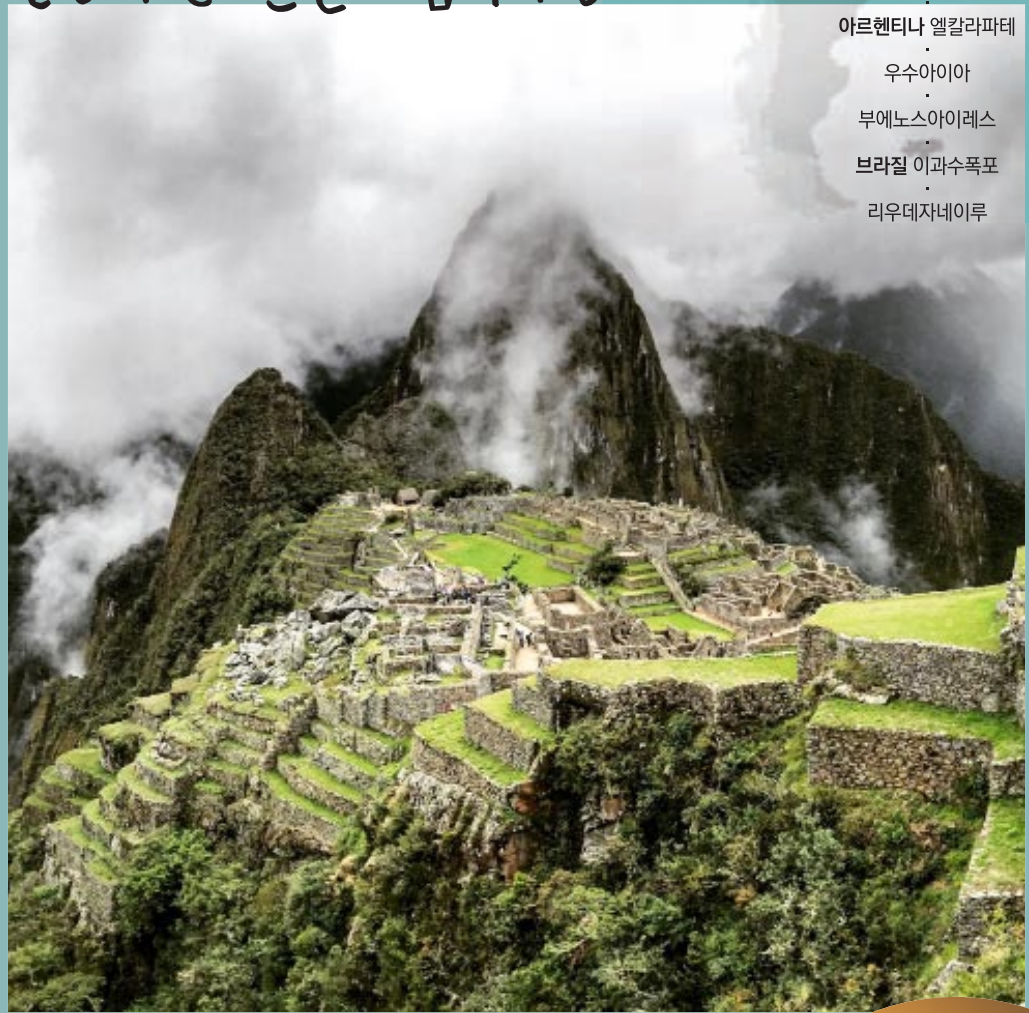
America



가장 짙은 지금 일생의 단 한번 - 남미여행



- 페루 리마
- 피스코/이카 사막
- 쿠스코
- 마추픽추
- 푸노
- 볼리비아 라파스
- 우유니 사막
- 칠레 산페드로데아타카파
- 산티아고
- 푸에르토나탈레스
- 아르헨티나 엘칼라파테
- 우수아이아
- 부에노스아이레스
- 브라질 이과수폭포
- 리우데자네이루



원익올딩스 재경팀 방준식 과장

원익에는 원익인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해외 배낭여행 프로그램이 있다. 매년 지원을 통해 30명을 선발하여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 자유롭게 떠나보는 기회를 경험한다.



페루 마추픽추
인천공항에서 LA를 거쳐 페루 리마까지 비행기로 40시간에 걸쳐 도착한 후 다시 하루를 꼬박 이동하여 도착한 해발 2,430미터에 위치한 잉카문명의 공중도시 마추픽추. 높은 산속에 위치해 1911년이 되어서야 발견된 유적지이다. 이곳 날씨가 변화무쌍하여 비가 오면 입장불가로 걱정했으나 운 좋게도 화창한 날씨 속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마추픽추가 한때는 정부의 관광자원으로 관리 없이 활용되어 많이 훼손되었다. 최근 유네스코의 요청으로 하루 1,500명으로 입장을 제한하고, 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후손들을 위해 잘 관리되고 있어 안도했다.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남미 여행 중 가장 잊지 못할 장소를 꼽자면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에서의 하루이다. 안데스산맥이 과거 해저에서 급격하게 융기하며 바닷물이 증발하여 생긴 소금사막이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 우기에는 소금 사막에 차 있는 빗물로 인해 하늘이 투영되는 신비로움이 있고 건기에는 끝 없는 소금평원을 이용한 착시효과로 재미있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다. 이곳을 보기 위해서는 고산병(평균 해발 3,400M)과 지루한 이동을 감수해야한다. 가는 길이 힘들고 험난하지만 우유니의 환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장 짐을 꾸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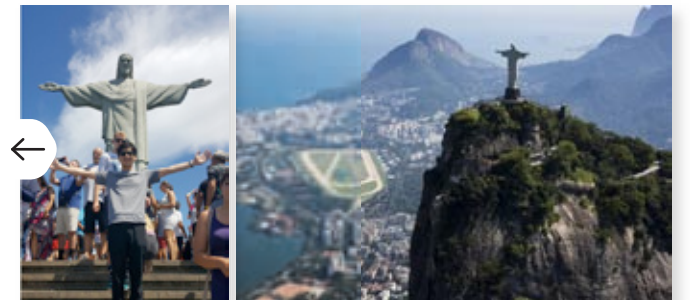
칠레 파타고니아 모레노빙하
칠레는 남미 국가 중에서 부유한 국가에 속하며, 수도 산티아고의 물기도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페루와 볼리비아에서는 호텔 및 교통이 열악했지만, 칠레부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이 여행할 수 있었다. 페루와 볼리비아의 고온 건조한 기후와 달리 칠레는 우리나라 가을과 비슷하며, 파타고니아(남미 대륙 남쪽)는 겨울 날씨였다. 파타고니아의 모레노빙하는 정말 거대하다. 지구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빙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끔씩 빙하가 움직이는 소리는 정말 굉장했다. 인솔자와 함께 한 트레킹 이후 모레노빙하를 넘어 마신 위스키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아르헨티나 이과수폭포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이과수 폭포는 하이라이트인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이름 그대로 장관이었다. 80미터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는 높이 뿐만 아니라 물의 양과 떨어질 때 발생하는 물보라로 인해 아래가 보이지 않아 이름에 걸맞은 폭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망대에서 폭포를 보고 싶다면 입이 그 광경에 놀라 아무말도 할 수 없이 감탄사만 연발했다. 이과수 폭포 말고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는 탱고쇼와 성당, 박물관, 공원을 관람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꼭 즐겨야 할 액티비티를 추천한다면 단연코 스카이다이빙이다. 현지 물가가 싸서 비교적 저렴하게 동영상도 찍으며 스카이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하늘에서 자유 낙하하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멋진 풍경을 보는 것은 결코 지나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16년 올림픽 개최지며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한국의 초여름 날씨로 날씨보다 무서운 것은 브라질의 치안이 좋지 않아 주요 관광지과 호텔 입구 등에서 삼엄한 경비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총이었다. 택시기사는 실탄이 장착된 총이라고 하며 국가에서 허가된 개인별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위축되었다. 올림픽 개최지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랜드마크인 예수상에는 정말 사람이 많았다. 코파카버나 해변에는 축구의 나라답게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즐기고 있었고,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들, 열정과 낭만이 살아 숨쉴다. 1박2일 짧은 브라질의 일정이 아쉬움을 남겼다.





팀장 이승현 원익홀딩스 품질관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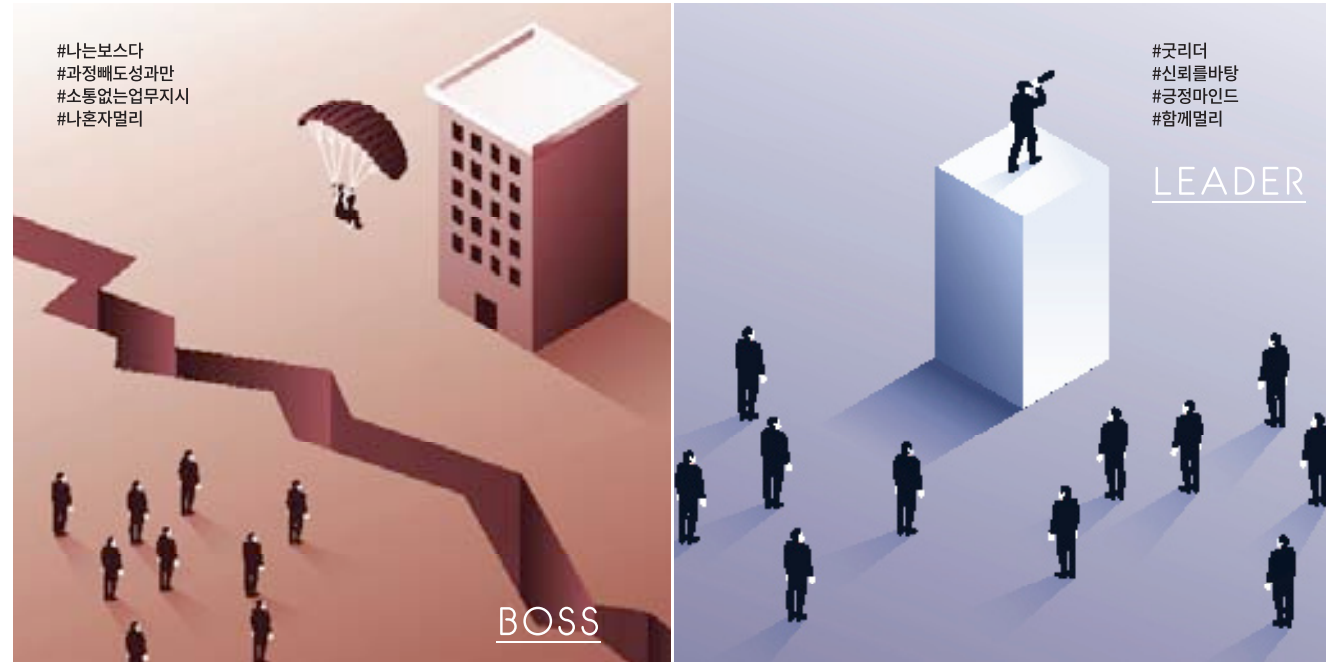
the 7th lea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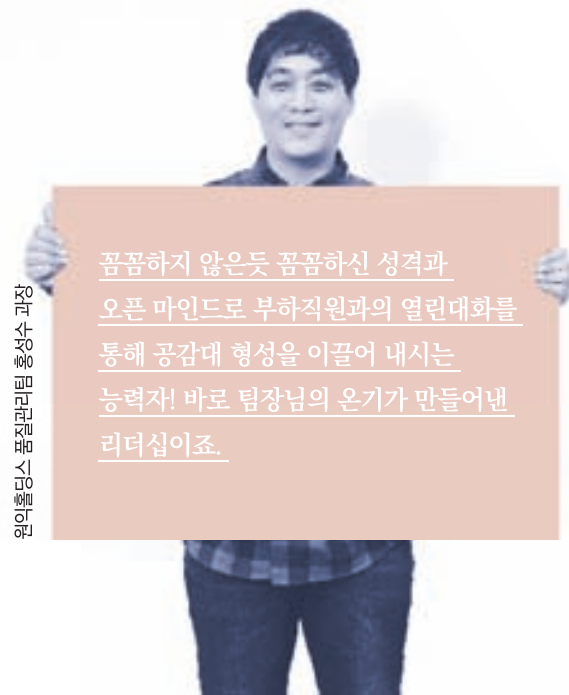
LEE SEUNG HYUN 19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고
수치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 그리고 조직을 움직이는
방향키를 제대로 잡아내는 -
리더란 조직의 최고경영자 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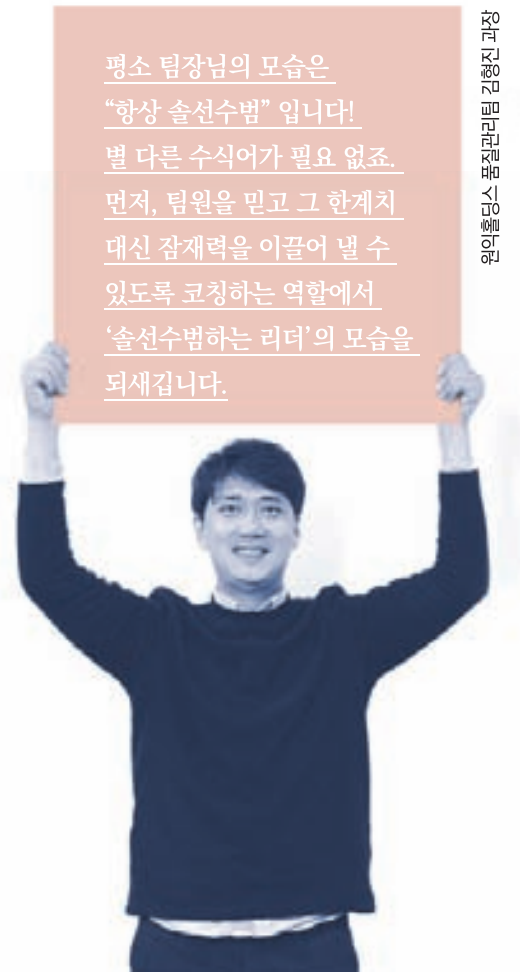
Boss vs. Leader



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질 불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할 때 일입니다. 해당 검사와 관련된 부서 및 협력사에서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팀장님은 누구보다 먼저, 검사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시스템을 구축, 연계하여 결과를 실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며 '리더가 술선수범하며 팀원들과 함께 생각을 맞대면 어떤 일이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안되는 것은 없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시킨 검사 시스템이 현재는 출하검사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활약중에 있습니다.



원인: 품질관리팀 김형진 과장



원인: 품질관리팀 김형진 과장

知行用訓評

안녕하세요,

원인 홀딩스 품질관리팀 이승현 팀장입니다. 저는 1997년 아토 고객지원팀으로 입사하여, 현재 2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업무는 품질 업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 째 '굿리더'에 선정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더 유능한 리더 분들도 많은데 부족한 저를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제 자신을 뒤 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한 듯 합니다. 저희 대표이사님이 늘 강조하신 조구지필대시(鳥久止必帶矢) : 편하고 이로운 곳에 오래 있으면 마침내 화를 당한다. 매너리즘(Mannerism)의 뜻을 조직원 모두 가슴 깊이 새겨서, 변화와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다시 한번 쿼텀 점프(Quantum jump)하는 원인 홀딩스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평소 생각하는 '리더의 참모습'이란?

조직이라는 큰 집단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핵심가치와 공동목표 등 성과에 항상 관심을 가지며 실패를 두려워 않고 적극적인 승산이 있어도 확신이 있다면 조직의 공동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미래 중심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리더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부서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수직적인 관계인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가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평적 관계인 "선배, 친구"로서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 관계를 바탕으로 부서원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며, 항상 술선수범하는 리더가 되어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성,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리더의 5가지 구성

- ¹지(知) — 리더도 전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²행(行) — 술선수범, 실천력, 언행일치
- ³용(用) — 적재적소 부서원 구성
- ⁴훈(訓) — 지속적인 가르침과 훈련
- ⁵평(評) — 공정하게 평가

올해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2년에 걸쳐 부서원들과 같이 개발한 QDMS 개발에 대한 유관 시스템 연계 고도화, 오결선 장비 개발 및 Purifier 핵심인 Column Life Time 검증 등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로 회사 Slogan 인 "Total Gas Solution Provider" 일조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이 개인적인 포부입니다.

부서원들에게 특별히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그동안 많이 부족한 리더를 믿고 한 방향, 한 목표 달성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존재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추진 해 주신 품질 관리팀 부서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품질 관리팀 파이팅!!!!

2020년 조직 변경에 따라 제조 팀장으로 보직 변경 되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조직에서도 참다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_____

WONIK

AM 8:00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K부장은 출근하자마자 현장으로 향했다. 사무실 모니터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난다. 직원들의 안전모에 부착된 센서와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된 센서가 계속하여 모니터에 표시된다. 이를 통해 만약 직원이 위험지역 안에 있거나, 유독 가스에 누출될 가능성이 생기면,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AM 12:00

식당으로 향하던 K부장은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으로부터 알림 문자를 받았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는 걸핏하면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 해서 위치 정보 팔찌를 통해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알림 문자는 아버지가 계속 요양원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이다.

글 김준재 과학칼럼니스트

From IoT to IoE

사물인터넷(IoT)에서 만물인터넷(IoE)으로

PM 6:00

주차된 차가 다른 차량에 부딪혔다는 알림 정보가 스마트폰에 뜬다. 실시간 차량 정보를 알려주는 블랙박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설치된 충격 감지 센서를 통해 전해진 신호였다. 주차장에 가보니 거래처 차량의 운전기사가 문을 열다가 부딪히면서 충돌 신호가 발생한 것. 부딪힌 곳을 살펴보니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과만 받고 마무리한다.

PM 9:00

저녁 TV뉴스에서 노후된 교량 붕괴 조짐이 확인되어 출입이 통제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붕괴 위험이 있는 교량이나 건물에 붙어있는 스마트 스티커가 찢어지면서 위험 신호를 보낸 덕분이다. 이런 기기들 덕분에 사람이 직접 다리 중간이나 건물 외벽을 검사하지 않아도 바로 위험 정도를 알 수 있다.

PM 11:00

불이 켜진 상태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부부는 잠시 후 잠이 들었다. 5분 정도 더 시간이 지난 후 인기척이 없자 안방의 전등이 자동적으로 OFF됨.

PM 7:00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그는 집이 아닌 약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빈혈이 있는 아내를 위해 철분제를 사려고 약국을 방문한다. 가족들이 착용한 웨어러블이 수시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서로 공유한다. 집 앞 대문 앞에 서자마자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얼굴 인식 센서가 그의 얼굴과 신체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K부장이 사 온 마침 필요했던 철분제를 보고 고마워한다.

AM 6:00

기상하자마자, 수면중 호흡과 심박동 상태, 그리고 위치임 상태를 인지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했다. 누워있던 매트리스 안의 센서가 측정한 수면 데이터를 살핀 뒤, 그는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자고 마음먹는다.

IoT는

다양한 사물이 통신장치와 센서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동작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SECURITY
TEMPERATURE
HUMIDITY
TURN ON
TURN OFF

IoE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 및 시스템 간에 오가는 데이터를 통해 모든 만물이 연결되는 이른바 '초연결(Hyper-connectivity)'의 세상인 것이다.



IoT는 다양한 사물이 통신장치와 센서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동작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물만이 아닌 사물과 사람, 또는 데이터나 프로세스 등 세상에서 연결 가능한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상호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로 '만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이다. 만물인터넷이란 용어는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처음 등장했다. IoT가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라면, IoE는 연결 범위에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연결되므로 보다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IoE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 및 시스템 간에 오가는 데이터를 통해 모든 만물이 연결되는 이른바 '초연결(hyper-connectivity)'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활용품 회사인 P&G의 전동 칫솔을 꼽을 수 있다. 이 전동 칫솔이 제공하는 기능은 IoE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치아와 구강구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 같이 생긴 칫솔이지만 효과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P&G는 이 같은 문제점을 전동 칫솔과 치과 주치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접목시켜 고객별로 모두 다른 칫솔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가령 칫솔질을 할 때 어느 부분에서 더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해야 하는지를 스마트폰과 연결된 전동칫솔이 인지하여 해당 부위를 지나칠 때 자동적으로 칫솔질의 강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치아의 상태에 따라 칫솔이 마모될 것을 미리 예측하여 교체시기가 오면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내는 알림 정보도 제공한다. 사람의 치아와 전동칫솔이 데이터로 연결되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치아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IoE가 우리들의 삶에 매우 가까이 와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프랑스 전자소재 업체인 '시티즌 사이언스(Cityzen Sciences)'가 개발한 인터넷에 연결된 기능성 운동복을 들 수 있다. 이 운동복에는 무게가 가볍고 작은 센서들이 촘촘하게 달려 있어서 운동 선수의 심장 박동수나 달리는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선수가 경기장이나 운동장의 어디에 서있는지를 측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신호를 접수한

감독이나 코치는 스마트폰만 열어봐도 해당 선수의 활동 범위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선수의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 시기를 잡는데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IoE 솔루션을 구현하려면 사물과 사물을 만나게 해주는 'M2M'과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M2P',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P2P' 등 3가지 연결 유형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처럼 IoE가 만들어 갈 세상을 상상하다보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오른다.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더 고도화된다면 사람의 생각(think)을 사물에 연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M2T 또는 T2T 같은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다. 아마도 그런 날이 온다면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고사성어가 디지털 버전으로 새로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만물인터넷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왼쪽부터
구매팀 한세윤 대리, 노주영 과장, 구홍은 사원, 정상길 팀장, 손명수 과장
SCM팀 장재윤 팀장, 박혜리 대리, 정순호 과장, 김성훈 과장

따로 또

씨엠에스랩 구매팀 & SCM팀

같이

씨엠에스랩의 가치를 높이는 동행

이번 <원익인> 신년호의 '그레이트팀'으로 조명한 주인공은 조금 특별하다. 바로 씨엠에스랩의 짝꿍 같은 두 팀이 함께 선정되었다. 팀원마다 고유한 업무가 명확하게 나뉘져 있는 SCM팀.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같지만, 담당 제조사와 세부 제품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구매팀. 각각의 팀원들에게 부탁한 자기소개에서부터 두 팀의 스타일은 쉽게 구별되었다.

WE HAVE A DREAM!

시간이 안내해 준
오늘의 자리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오랫동안 한 팀으로 묶여 있었다. 솔깃한 히스토리아자 바로 그것이 오늘날 두 팀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응원하고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이기도 했다. 모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가운데, 구매팀의 정상길 팀장이 앞장서 입을 뗐다.

“과거에는 현재의 SCM팀에서 공급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성훈 과장과 저희 팀의 명수 과장님, 그리고 주영 과장님께서 구매팀과 SCM팀의 모든 업무를 ‘구매팀’이라는 부서명 아래 도맡고 있었어요. 역할이 혼재돼 있는 가운데 과중한 업무까지 더해져 있었죠. 무엇 하나 집중하면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태에 제가 구매팀의 팀장으로 입사를 했어요(웃음). 일단 인원부터 충원하고 구매팀의 업무분장을 새로이

점검해나갔죠. ‘개발-포장재 수급-제품 생산-창고 입고’까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는 업무가 중간에 분리되지 않도록 지금처럼 제조사 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만들었어요. 차츰 구매팀의 그림이 그려지자, 다음은 SCM팀의 독립이었죠. 물류와 SOP(표준운영절차) 전문가의 리더십이 절실했거든요. 그렇게 장재운 팀장님이 새로이 부임하고 인원이 더해지면서 SCM팀도 마침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게 작년 3월의 일이라니, 들으면서도 살짝 아찔해졌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업무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비로소 자신에게 꼭 맞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지난 1년.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시기는 조금씩 달라도, 모두가 그 과정에 기여한 주역들일 터, 모두의 소회를 하나씩 들어보았다.

그웨이 2019! 구매팀

— 작년 6월에 입사하면서 개편 이후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록들을 유추해봤을 때, 두 팀이 계획과 수급을 분명하게 나누어 진행하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CM팀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팀이 일정을 맞춰서 수급을 진행하죠. 두 팀 간의 소통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느끼고요.

한세윤 대리



— 지난 1년 동안 우리 팀이 가장 잘했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원가절감이에요. 예전에는 데이터도 부족했고, 여건 상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게 솔직히 어려웠거든요. 업무가 나누어지면서 여유가 생겼고, 처음으로 원가절감에 집중해서 일을 했던 한해였어요.

노주영 과장

— 저는 팀 개편되고 나서부터 합류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업무에는 응당 그에 맞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잘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해서 일을 통해서 배우는 점이 많아요.

구홍은 사원



— 저는 입사한지 꽤 오래된 터라, 기존에 한 팀으로 일한 성훈, 주영 과장과 함께 많은 변화를 몸소 겪었죠. 최근 팀이 분리가 되면서부터 개인 역량들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정과 수급을 체크하기에도 바빴다면 지금은 보다 디테일하게 개발이나 각 자재의 사양에 대해서도 알아가며 몰랐던 부분을 채워가고 있어요.

손명수 과장

— 전체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리드타임이 짧아졌어요. 팀원들 각각 맡은 일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책임도 부여됐고요. 즉, 그만큼 일을 똑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죠. 앞서 주영 과장님 언급한 원가 절감에 대해서도 회사에 보이지 않는 수익성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길 팀장

그웨이 2019! SCM팀

— 부서의 인원이 더해지는 팀은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이 분류되고 맡은 바가 확실해지면서 업무의 집중도와 깊이가 깊어졌어요. 스스로의 역량이 책임감과 역량이 높아짐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어요.

김성훈 과장



— 팀의 분류 덕분에 판매와 공급이 분류되고 안정되는 길에 접어들었어요. 우리 쪽에서도 체계를 많이 잡았고, 구매 쪽에서도 과거 했던 일을 세분화하면서 리드타임 단축이나 원가절감 등 정말 중요한 일에 보다 신경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런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 팀이 필요한 기준을 다잡아나가고 싶습니다.

장재운 팀장



— 돌아보면 결국 회사에서 저희는 막내팀인 셈인데, 작년에는 팀의 기반을 잘 다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많이 노력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구매팀을 비롯해 많은 부서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박혜리 대리

— 저도 작년 6월에 입사해서 물류센터로 새로 이전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저도 회사에 적응하고, 새로운 물류센터도 우리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운통 시작으로 가득했던 작년이었어요. 올해는 더 안정된 상황 속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정순호 과장



우리가 누구? 씨엠에스랩의 떼려야 떼 수 없는 두 팀을 소개합니다!

장재윤 팀장이 이끄는 SCM팀

- 김성훈 과장 — 공급기획 담당
- 정순호 과장 — 물류센터 담당
- 박혜리 대리 — 수요예측 담당



정상길 팀장이 이끄는 구매팀

- 노주영 과장 — 외주업체 관리, 신제품 개발 담당, 제조사 '신세계 인터코스' 관리, 올리브영 최초 시럽앰플, 컨디션 토너 등 스킨케어 라인 입점 진행
- 손명수 과장 — 외주업체 관리 및 신제품 개발, '레이저 썬 스크린' 제품 수급·공급
- 한세윤 대리 — 한국콜마 '토닝 썬 스크린' 제품 수급·공급, 올리브영 추천템 '카밍다 운크림' 제품 담당
- 구홍은 사원 — 원익 공채 합격 1년차 신입사원, 코스맥스와 '큐어 썬 스크린'을 담당



great team



Mini Interview

Q.
2020 새해를 맞아 각 팀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업무, 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SCM 팀

“우리 회사가 판매나 성장이 완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오히려 성장세가 급변하는 회사죠. 그런 가운데 언제나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걸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요. 영업채널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재고를 감축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큰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구매팀으로부터 업무를 분리 받아 공급체제를 만들어가는 중이죠. 빠른 시간 내에 입출고의 관리와 체계를 어느 정도 갖췄지만, 세부적인 요소들이 다듬어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올해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구매팀

“급변하는 영업환경과 다양한 영업채널 등으로 각 팀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바도 각각 다르기 마련이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6주 납기 관리를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세워도, 해외에서 4주 납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단납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결품을 내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적시에 제품을 수급/공급할 수 있을까가 SCM팀과 저희의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즉흥적인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두 팀이 함께 발맞추고 있고요. 특별히 올해는 군납 이슈가 있는 만큼 품목에 대한 월가, 납기 일정들을 잘 처리해내는 게 목표입니다. 사이사이 부자재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팀원 분들의 자기개발도 돕고 싶고요.”

애니메이션을 문화적 상품이자 작품으로 만들어낸 인물, 월트 디즈니는 말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이 생쥐 한 마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날 디즈니는 '콘텐츠 공룡'이라 불리지만 그 시작은 꼭 월트 디즈니의 말처럼 미키마우스에서 시작되었음이 분명하다. 모두가 그 경이로운 역사를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원익이 주목한 세계
|
키워드로 읽는
글로벌 기업의 핵심 역량



- PART 1. 식품 - 네슬레
좋은 식품이 행복한 생활을 만든다
- PART 2. 엔터테인먼트 I - 넷플릭스
방송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다
- PART 3. 엔터테인먼트 II - 월트디즈니**
기업이 된 애니메이션 창작 집단
- PART 4. 물류 - DHL
운송서비스,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다

꿈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
DREAMS COME TRUE

월트디즈니

우리가 아이였던 시절, 디즈니가 있어 행복했듯 우리의 아이들도 디즈니를 보며 행복을 배운다.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를 제 것으로 흡수해온 덕분이다. 그 결과 마블과 픽사, 루카스필름 그리고 21세기폭스는 이제 디즈니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전무후무한 역사로 세계 1위 콘텐츠 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디즈니. 과연 어떤 경영 정신이 디즈니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

꿈꾸고, 믿고, 도전하고, 실행하라

사람들은 말한다. 월트 디즈니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미래도 나쁘지만은 않겠지만, 솔직히 디즈니가 없는 세상은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다. 정규교육도 받지 못했던 가난한 미술가 디즈니는 상업 광고를 제작하는 회사의 도안 사였지만 꿈과 열정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1923년 최초로 영화를 제작한 이래 100년의 시간 동안 디즈니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지키며 끝없이 확장해왔다. 월트 디즈니는 평화 속에 잠들어 있는지 오래지만, 창립자인 그의 정신만은 여전히 생생히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디즈니의 정신을 요약하자면 "꿈꾸고, 믿고, 도전하고, 실행하라"란다. 이 같은 메시지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있는 오늘날, 공기업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신입 사원에서부터 CEO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속적으로 되새겨야 할 구호처럼 느껴진다.



Walt Disney

디즈니만의 방식 '고객을 위한 상상을 멈추지 말 것'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부터 디즈니랜드의 현장 구성구석까지 고객 중심 문화가 스며있기로 유명하다. 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스타트업에서부터 비영리단체, 대기업과 의료시설까지 다양한 조직들이 본받음직한 '디즈니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디즈니에는 '이매지니어'라 불리는 직원들이 있다고. '상상(IMAGINATION)'과 '엔지니어(ENGINEER)'를 조합해 탄생한 새로운 역할, 즉 '상상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기술자'인 셈이다. 이들은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과 동료들의 능력을 믿고 방법을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디즈니는 충성도에 창의력이 더해진 직원이야말로 자신들의 자산임을 일찍이 알아차렸다.

디즈니의 핵심은 이 같은 인재를 그냥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부부터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디즈니의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사내 교육기관인 '디즈니 대학'에서 별도의 고객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즐겁게 교육하라'가 방침인 이곳에선 디즈니가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개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 중심의 문화를 체득하게 된다.

Walt Disney said -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이 내 신념에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여 도전하고,
그 꿈들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실행합니다.



WALT DISNEY



기업과 고객을 행복으로 이끄는

디즈니의 기업 정신

1.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꿈들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성을 자극하라.
2.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고수하라.
3. 고객을 귀한 손님으로 대하라.
4. 직원을 격려하며 권한을 부여하고 포상하라.
5. 핵심 공급업체 및 협력사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6.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예측된 리스크를 과감히 감수하라.
7.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
8. 장기 비전에 맞춰 단기 실행 전략을 구상하라.
9.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의사소통을 개선시키기 위해 스토리보드 기법을 활용하라.
10. 디테일에 깊이 주목하라.
11. 직원과 고객과 제품과 자신을 사랑하라!



디즈니와 함께한
한국의 숨은 별들★

FOCUS ON YOU

애니메이터 김상진

고2 신체검사서 '적록 색약' 판정을 받았지만 광고 회사 일러스트레이터로 취직하면서 그림을 향한 열정을 이어갔다.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1986년. 캐나다의 케네디카툰스에서 6년간 근무한 끝에 마침내 1995년, 월트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부에 제 이름을 올린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수석 애니메이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입사 후 <라퐁젤> 과 <겨울왕국> 등의 제작에 참여했다.



애니메이터 김재형

강남세브란스 비뇨기과 레지던트로 일하던 그였지만 평소 관심 있던 애니메이션 제작을 배우기 위해 미국 유학을 선택, 과감히 직업을 내려놓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Academy of Arts University'에 입학해 애니메이션을 공부한 그는 졸업 후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얻는다. 그가 참여한 대표 작품으로는 <라따뚜이>, <토이 스토리 3>, <카 2>, <굿 다이너> 등이 있다.



애니메이터 김정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공학과 예술을 접목한 학문에 흥미를 느껴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카네기 멜론대 대학원에서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를 공부한 그는 대학원 수료 후 2006년 드림웍스에 입사하여 현재 캐릭터 특수효과를 담당하고 있다. <마다가스타 2>, <마다가스타 3>, <슈렉 포에버> 등의 제작에 참여했으며, 지금도 수천 개의 캐릭터를 탄생시키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슈퍼바이저 이현민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만화만 보고 그림을 그렸다. 이 과생인 그는 천문학과로 진학 후 한학기 다니다가 자퇴했다. 수능과 함께 미국 대학도 준비했었는데, 미국 웨슬리언 대학교에 입학해 미술을 전공했다. 디즈니에는 인턴십을 통해 2007년 재능 개발 프로그램에 합격하면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일하게 됐다. 이후 <공주와 개구리>, <곰돌이 푸>, <주먹왕 랄프>, <겨울왕국>, <주토피아>, <모아나> 애니메이터로 참여했다.



*슈퍼바이저

디즈니 스튜디오에는 8~90명의 애니메이터가 있다. 슈퍼바이저는 총 6명인데, 각자 담당하는 캐릭터가 다르다. 맡은 캐릭터의 성격을 어떻게 동작, 손짓, 연기로 드러내는지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한다. 여러 애니메이터가 작업한 결과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Theme.

행복 -
즐거움

HAPPINESS



아마도 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

section II.

“조금 비싼가 싶지만, 오늘은 월급날이니까 괜찮아.”

어느 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대사는

현실 세계의 우리에게도 퍽 친근한 독백입니다.

월급날의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처럼

평범한 어느 날에도,

삶이라는 생생한 무거움에 짓눌리지 않는 내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겨우 눈을 떴지만 이내 씩씩하고 담백하게 나서는 출근길을

반복되는 풍경 속에서도 깜짝, 반짝이는 순간을 발견하는 오후를

슬픔보다는 아무래도 기쁨과 즐거움이 더 익숙한 저녁을 말이죠.

그리하여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 세계의 온도가

조금씩, 천천히, 포근하게 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원익은 이제 만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20 시무식

원익 판교 사옥의 로비는 새 아침의 빛으로 들어차 평소보다 매끄러워 보였다. 시무식을 앞두고 일찍이 모여 있는 임직원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새해를 향한 근근한 기대가 피어있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풍경은 지난해 열린 공채 6기에 당당히 합격한 신입사원 무리였다. 놀랍게도 면접 때 언뜻 보았던 낯익은 얼굴이 있어 반기웠다. 어느 때의 새해보다 '원익'이라는 소속감이 단단하게 연결돼 있는 듯한 1월 2일이었다.



2020 원익 임원인사

“다시 불꽃을 피워낼 원익인들, 축하합니다!”

부사장 승진 - 원익 양원용

/

전무 승진 - 5명

원익아이피에스 김용갑

원익아이피에스 김동철

원익아이피에스 나민권

원익투자파트너스 이석재

원익투자파트너스 이형우

상무 승진 - 8명

원익큐엔씨 홍정우

원익큐엔씨 도현수

원익아이피에스 김동현

원익아이피에스 김종환

원익머트리얼즈 장빈

씨엠에스랩 김규섭

나노윈 오동근

원익엘앤디 진주식

WONIK

춤춤하게 눈부셨던 2019 그리고 더욱 더 눈부실 2020

모든 시작 중에서도 시작, 말하자면 시작의 선두에 선 하루가 될 오늘. 개회사와 함께 승진을 축하하는 사령장 전달 순서가 시무식의 포문을 열었다. 새해 첫 날부터 축하할 일이 많아 어쩐지 한 해를 든든하게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원익아이피에에서의 김용갑 전무가 대표로 소감 인사를 전했다. “2020년이 ‘글로벌 원익’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멋진 신입사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 든든합니다. 앞으로의 원익이 1등 기업으로 가기까지 어떤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박수를 멈추기에는 아직 일렀다. 혁신적인 도전과 눈에 띄는 성과로 2019년의 원익을 빛낸 ‘원익인상’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문별로 각사에서 가장 의미 있고 탁월한 성과를 낸 6명이 선발되었는데, 호명되는 이름들과 공적은 하나같이 춤춤하게 눈부셨다.

먼저 공적상 그랑프리에는 ‘해외 디스플레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원익아이피에스 위광희 상무 외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기술개발상에는 원익아이피에스 권영수 상무 외 7명이 뛰어난 혁신과 신기술 개발로 주요 설비 경쟁력을 극대화한 공을 인정받았다. 마찬가지로 원익아이피에스의 김선혁 부장 외 14명 역시 세계 최초로 최단 기간 개발을 통해 OLED용 레이저 가공 설비를 개발하면서 같은 상을 수상했다.

한편 혁신상은 원익큐엔씨의 주운관 상무에게 돌아갔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임플란트 표면개질용 엑시머라프 개발하고 사업화 성공 및 상용화에 기여했던 유의미한 한 해를 다시금 곱씹을 수 있었다. 특별상은 작년 한 해 동안 완성도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장비회사로 성장하며 대내외적 인정을 받았던 원익아이피에스 최유지 상무 외 13명이 거머쥐었다. 끝으로, 미래가치 창출에 기여한 원익머트리얼즈의 장빈 상무가 특별상을 공동 수상했다. 특정 대기업에만 한정돼 있던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매출을 확장시키고, 대만과 중국에 신규 시장을 개척하면서 지속적으로 회사 성장을 도모한 노력이 모두에게 귀감처럼 스며들었다.

위광희 상무가 대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와 함께, 뭉클한 소감을 전했다. “최대매출, 최대성과를 냈지만 기술부서와 같은 타 부서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내년, 내후년에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윽고 이용환 회장의 신년 인사가 오늘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모든 원익 가족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눈앞에 서 있는 신입사원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도 잊지 않았다. 공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이 회장에게 매년 마주하는 새로운 얼굴들은 벌써부터 애뜻할 수밖에 없으리라. 더불어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임직원들과는 자연히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결속력과 의지를 보였다.

“앞서 진급을 축하받고 원익인상을 수상한 분들이 저마다의 소감으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는 데에 열정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이죠. 이번 시무식에 전할 인사말을 앞두고 저도 생각했던 바여서 깊이 동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과 나눴던 신년사를 훑어봤더니 특별히 달라진 메시지는 별로 없더군요(웃음). 저는 우리 기업의 방향과 목표가 일관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익 투모로우 플랜
글로벌 기업에서 백년 기업으로**

올해 시무식에서는 원익의 뿌리 깊은 각사 중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소중하게 기억되었다. 씨엠에스랩은 작지만 열심히 뛰고 있는 현재를 강조했다. 젊은 회사인 만큼 직원들과 일하는 모든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리더의 말에서 진정성이 묻어났다. “우리는 앞으로도 원익의 성장을 함께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원익을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어지는 로보틱스의 믿음직스러운 인사도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씨엠에스랩보다도 작고, 또 어린 회사입니다(웃음). 4년 전 6명이었던 우리가 올해로 30명의 구성원을 갖추었습니다. 2020년에는 줄곧 목표로 삼았던 도전, 변화, 열정에 ‘성과’라는 키워드를 더해서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해가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이 회장은 원익의 모든 사업이 세계의 메이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10년 전의 원익을 생각하면 과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소회했다. 때문에 올해는 당당히 이 같은 포부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기쁘고, 고무적으로 느껴진다고. 이것이야말로 지난 몇 년 간 기업이 일궈낸 가장 큰 변화 아닐까. 지금처럼 방향과 목표가 뚜렷한 열정 있는 조직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문화를 선진적으로 가꿔나가고, 종래에는 그에 따른 보상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 원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회장은 원익이 나아가는 곳마다 함께할 공익적인 풍경도 그려보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통 받고, 외로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익은 소외되지 않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더 굳건히 자리 잡아 임직원 모두가 따뜻한 직장으로 생각하는 원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원익이 원익 가족들에서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원익이 미래, 따뜻함, 희망과 같은 단어와 잘 어울리는 기업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을 향한 진솔한 바람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인사말이었다. 로비 가득 박수가 울려 퍼졌다.

끝으로 약 1000:1이라는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한, 치열했던 관문을 뚫고 입사한 공채 6기 신입사원들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어엿한 원익인으로 함께 성장할 그들의 얼굴에서 원익의 미래를 밝게 점칠 수밖에 없었다. 우렁찬 새해 인사로 시무식이 경쾌하게 막을 내렸다. 91명이 함께 외쳤던 “새해 복 많으세요”는 분명 얼마간 모두의 마음속에 흐뭇하게 남았으리라. **WONIK**

<원익인>과 함께, 빛나는 2관왕을 거머쥐다

“제29회 2019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본 상은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과 기관, 단체 커뮤니케이션제작물과 비즈니스저널리즘 관련 매체를 대상으로 기업문화 발전과 관련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상식입니다. 1991년, '한국사보대상'으로 시작된 역사 깊은 자리에 <원익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록을 더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의 계절마다 원익 여러분이 보여준 창의적인 활동과 다정한 관심 덕분입니다.



원익이 발간한 2019사보<원익인>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는 커뮤니케이션 경연대회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기획·편집·디자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사내보 부문' 대상과 '기획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은 물론, 원익을 지탱하는 구성원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살뜰히 담아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꿔나가는 삶이 더 멀리, 더 크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새해입니다. 그 과정의 일부가 <원익인>에 새겨지는 날들도 기대해봅니다.

겨울의 한가운데로 접어드는 가운데, 2020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도 <원익인>은 원익이 이뤄내는

원익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꽃처럼 피어나는 다음 계절에 또 뵙겠습니다.

뜨끈함 배달하는 사랑의 징검다리

원익큐엔씨
2019 연탄나눔활동

WONIKIN v. 00 | Happiness

원익큐엔씨 임직원들이 지그재그로 줄지어 늘어섰다. 한쪽 끝에는 연탄이, 반대쪽 끝에는 구미시 원평동 주민들의 보금자리가 있다. 첫 번째 주자가 연탄을 전하자, 나머지 사람들이 함박웃음을 지으며 기꺼이 징검돌 역할을 맡는다. 구들장을 달궈 줄 2,019장의 사랑이 주민들의 든든함과 함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인다.

연탄나눔으로 의미를 더한 2019년

가을 햇살 따가운 오후 3시가 되자 사람들이 원평동의 한 슈퍼 앞으로 하나둘 모여든다. 켈썬이 쌓인 연탄 더미가 이들을 곁을 지키고 서 있다. 잠시 뒤, 사람들이 자그마한 짐꾸러미를 나눠 갖는다. 그 안에서 파란색 조끼를 꺼내 입는데, 등쪽에 '원익나눔회'라는 하얀색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 아래 쓰인 자그마한 문구, 'WONIK QnC 사회봉사단'이 이들의 소속을 대신 말해 준다.

지난 10월 16일, 원익큐엔씨 임직원 28명이 연탄 배달 봉사활동에 나섰다.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던 17명 등 총 45명이 십시일반 기부 행렬에 동참해 올해를 의미하는 연탄 2,019장을 마련했다. 수혜 가구는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따뜻한 한반도가 주민센터와 힘을 합쳐 선정한 일곱 집. 이날 모인 임직원들은 이 중 여섯 집에 연탄 1,800장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도와준 따뜻한 한반도 담당자가 "벌써 연탄을 전달받을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말하자, 임직원들이 "얼른 기쁨을 전하고 싶다"며 화답했다. 14명씩 2개 조로 편성된 이들은 각자 맡은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르신이 대다수인 원평동 골목골목에 원익큐엔씨 특유의 활발한 분위기가 들어서자, 주민들이 간간히 고개를 내밀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연탄 배달하러 왔어요!" 한 직원이 앞선 사람의 조끼를 가리키며 말하자,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칭찬을 건넸다. "좋은 일 하시네! 다들 힘내세요!"



원익큐엔씨 오늘도 '더불어 사는 중'

가장 먼저 도착한 집은 오래된 2층 양옥. 윗층에 연탄 창고가 있어 배달이 쉽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기꺼이 한 줄로 늘어섰다. 연탄을 전달하기 좋은 '지그재그 포메이션'이 완성되자, 손들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탄을 실어 올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모인 주민 서너 명이 흐뭇한 눈빛으로 직원들을 응원했다. 연탄을 30여 분 쉬지 않고 나르다 보니, 선선한 가을바람에도 비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연탄 300장이 창고를 채우자 어르신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고생했어요. 여기 음료수 좀 들어요!" 어르신의 애정이 듬뿍 담겨서인지 평범한 주스가 평소보다 달다며 부듯해 하는 직원들. 연신 고맙다고 말하는 어르신에게 힘찬 인사를 드린 뒤 다음 집으로 향했다. 힘들 법도 한데 누구 한 명 그런 내색을 보이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맨 앞에서 연탄을 짊어지는 직원과, 맨 마지막에 연탄을 쌓는 동료들 걱정하며 자리를 바꿔 주겠다고 나섰다. 원익큐엔씨의 화목한 사내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순간이다.

원익큐엔씨는 현행·환경정화활동 등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봉사 외에 장애아동 소풍 동행·명절 음식 전달·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날의 연탄나눔활동도 그 일환.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힘을 모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원익큐엔씨'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들이 있기에 구미는 오늘도 한결 따뜻하다. **WONIK**



WONIK QnC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연탄나눔활동에 참여해 주신 임직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연탄을 미리 전달해 드리자는 의견이 많아서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이번 행사를 가졌는데, 주민들께서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누며 살아가는 원익큐엔씨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권순형 상무

“원익나눔회 소속으로 봉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참여합니다. 이번에는 연탄 나눔을 한다고 해서, 평소보다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참가 신청을 했는데요. 함께 땀 흘리면서 좋은 일을 하니 어르신들이 주신 음료수가 정말 달게 느껴졌고, ‘이런 맛에 봉사하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퀴즈생산1팀 한동민 기사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신경 쓴 부분은 ‘자율’이었습니다. 주변 권유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부하고 봉사해야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참가하신 모든 임직원 분들 얼굴에 한결같이 보람이 깃들어 있어서, 행사를 준비한 저희 또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연탄나눔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팀 최희식 사원



“사실 오래 전부터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참여를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아 오랜 소망을 실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희가 잠깐 낸 시간과 노력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먹지 않아도 든든하네요. 오늘을 계기로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세정생산팀 윤주성 기사

현재의 모습 보다
미래의 가능성이 더 큰 사람

WONIK

OUR WONIK YOUR PRIDE



원익 꽃 필 무렵

두근두근! 원익 공채 6기 면접 현장

로비에 서 있는 엑스배너에는 여섯 번째 신입 공채를 알리는 문구 아래로 네 개의 손이 나란히 모여 있었다. 그 모습이 꼭 새 일원을 맞이하는 다정한 손길 같았다. 맞이하는 데스크에는 지원자들의 명찰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다. 사이사이로 귀여운 포켓몬스터 피규어가 면접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장난스레 웃고 있다. 늘어선 이름표 중 다가오는 신년, 원익과 이름을 나란히 할 이들은 과연 어떤 얼굴일까? 벌써 궁금해졌다. 따뜻한 커피와 정성스런 다과가 준비된 테이블도 면접자들의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부디 오늘의 하루가 따뜻하고 달콤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밀도 높은 면접 현장에 함께 있자니 일면식도 없는 지원자들의 행운을 바라게 됐다.

이윽고 대기실은 면접자들의 뒷모습으로 가득 채워졌다. 어두운 정장 차림 일색인 지원자들. 정갈한 뒷모습에서 으레 느껴지는 긴장과 설렘,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피곤함이 섞여 있었다. 양 옆 간이 테이블 위로 길게 늘어선 각양각색의 백팩과 에코백만이 그들이 얼마나 고유의 스토리를 갖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짐작케 했다.

원익 공채 6기 면접 현장

미세먼지 없이 청명한 어느 가을날, 코엑스 3층 로비에는 앳된 얼굴의 면접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9년 11월 6일부터 9일, 원익 대졸 신입 면접이 진행되었다. 천 명에 달하는 지원자들이 제 미래를 걸고 부지런히 이곳을 두드릴 터였다.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날로 면접 현장을 함께 했다.



Have Your Pride!

이번 공채는 서류 합격을 통과한 933명이 5명씩 한 조가 되어 3일 동안 1차 면접을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총 184개의 조가 움직이는 마치 대형 규모의 행사처럼 느껴졌다. 면접에 앞서 인사과 과장님과 함께 하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마련돼 있었다. 인성면접(WCT 테스트)과 면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배치한 것이다. 면접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사측의 센스와 배려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형식적인 시간일 거라는 생각은 오산, 의외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면접비는 얼마가요!” 용기 있는 질문에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덕분에 조원들끼리도 초면이지만 훗날 원익에서 반가운 구면이 될 지도 모르는 옆 사람과 통성명을 하는 사이 대기실의 분위기가 차츰 누그러져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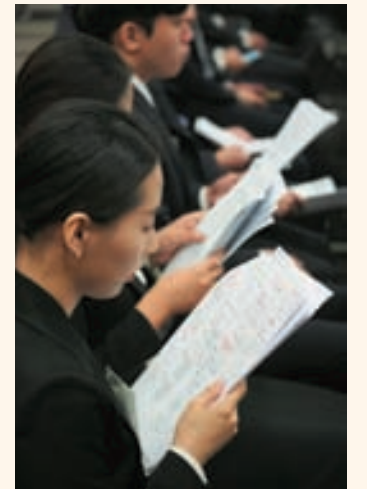
대기실 스크린에는 “원익은 여러분을 스펙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와 같이 응원을 주는 멘트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로비와 면접장소로 향하는 복도 곳곳에 지원자들의 용기를 북돋는 메시지가 포진돼 있었다. 엄숙하거나 권위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면접자들도 보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심분 발휘했으리라.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온 새로운 인연

원익 공채 면접이 가진 남다른 점은 지원한 회사의 임원진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의 임원진도 함께 참석하는 것이다. 원익이라는 각사에 맞는 인원을 보다 다채롭게 채용하기 위함이라는 인사팀 과장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다. 실제로 합격자의 10-20%는 최종 합격자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지원과 다른, 자신의 가능성을 더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계열사에 배치되기도 한다고. 지원자들의 다양한 면면을 판단하기 위해 면접 단계에서부터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인 장치인 셈이다. 나아가 공식 출근 전 회장님과 대면하는 자리까지 마련돼 있다는 것은 공채에 대한 사측의 애정이 가장 단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날 대기실에서 들었던 따뜻한 응원을 지면을 빌려 옮겨 본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면접은 여러분들은 물론, 면접관들에게도 결코 녹록치 않은 시간입니다. 물론 합격의 KEY는 면접관들이 쥐고 있지만, 분위기는 얼마든지 지원자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또한 이 면접은 위기상황에 대한 순발력 테스트가 아닌 개개인의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압박면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차분한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익 공채 6기 면접 현장 스케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오늘 마주한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많은 날들도 시작 일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 신입사원들의 건승과 더불어, 이미 노련하지만 새로운 앞에서는 여지없이 가슴이 설레는 우리들의 내일에도 진한 응원을 전하고 싶어졌다.



Q. 서류 전형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소감은 어땠나요?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서류에 붙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편으로 온 카드를 받고 나니 합격이 실감 났어요.”
“서류 지원 후에도 원익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살펴해보면서 합격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바라던 대로 면접의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Q. 원익을 미리 엿볼 수 있었던 1차 면접, 잘 치른 것 같나요?
“면접이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뤄졌고, 면접관분들께서 지원자들의 말을 하나하나 경청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잔뜩 긴장한 채로 들어갔는데 면접관분들이 지원자들의 대답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로 화답해주신 덕분에 차츰 준비한 바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합격이 당신의 일이라면 보답은 우리의 일입니다

지난 5기에 이어 이용한 회장은 공채 6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직접 신입사원 입문교육 현장을 찾았다. 모두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이 회장은 악수를 나누며 입장했다. 신입사원 다운 신선한 질의응답 시간이 오가며 모두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기업들은 해마다 신입사원들의 합격이 결정되고 나면 대개 입사에 앞서 회사의 핵심가치와 기업문화, 업무에 임하는 자세, 사우들과의 친목·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이때에는 교육이나 팀별 과제 수행이 덧붙여지곤 한다. 그러나 원익은

Story ②

지난 한 해 동안 새 자리를 향해 끝없는 도전을 이어나갔을 빛나는 청춘들. 그 여정에서 원익과 단단한 인연을 맺은 공채 6기 합격자들은 또 한 번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원익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여행'을 마련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는 데에 남다른 시도를 함으로써 합격자들의 얼굴에 스며 있는 긴장 대신 설렘만이 남게 했다. 오리엔테이션으로 할애된 시간 동안 온전한 쉼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을 꾸린 것이다.

이 같은 배려가 더욱 특별했던 것은 바로 이제 막 시작될 신입사원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원익의 새 인재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을 기획했다는 데 있다. 덕분에 부모님들도 사회로 첫 발을 내딛을 자녀를 향한 걱정과 염려를 잠시나마 잊고, 뿌듯함과 기쁨만을 즐거이 만끽하실 수 있었을 테다.



부모님과 어떻게 회사를 가?

판교에서 강릉까지 1박 2일 타임 테이블

1부/ '원익'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모님들을 위해 먼저 **판교 본사로 모셨다**. 부모님은 자녀의 회사에 방문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익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장소 선정이었다. 본사에서는 원익 각 사의 산업과 성장 비전, 원익의 핵심가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환상적인 경치와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는 **강릉 메이플비치에서 가족별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이 시간에는 저마다 부모님의 팔짱을 끼고 모처럼 산책을 하거나 밀린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순간을 남다른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원익은 사진 촬영 이벤트도 준비했다.

3부/ 저녁에는 신입사원과 가족, 선배 사원과 인사 담당자들이 **모두 함께 만찬을 즐기며** 다양한 세대가 한 데 모인 자리이니 만큼 서먹함을 풀어줄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의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이니만큼 연신 기쁨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튿날 강릉의 명물, **오죽헌 투어**가 기다리고 있었다. 신사임당과 울곡 이이가 태어나고 자란 오죽헌에서 신입사원들은 저마다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으면서 효(孝)에 대해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설명을 들던 중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시를 소개해 본다.



어머니를 그리며

신사임당

산천첩 내고향 여기서 천리
꿈속에도 오로지 고향 생각뿐
한송정 언덕위에 외로이 뜬달
경포대 앞에는 한줄기 바람
갈매기는 모래톱에 헤여졌다 모이고
고기배는 바다위를 오고 가겠지
언제쯤 강릉길 다시 밟아가
어머니곁에 앉아 바느질 할꼬



원익이 야심차게 준비한 '행복여행' 테마의 오리엔테이션. 처음 진행한 기획이 실제로 부모님과 신입사원들에게 어떤 시간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여행을 마친 뒤 한 원익아이피에스 신입사원의 어머님께서 전해주시신 말씀에 그 답이 있었다.

“사실 원익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가족까지 초청해준 회사의 배려에 감동 받았어요. 덕분에 저도 제 아이처럼 원익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WONIK**

끈끈한 우리가 다 함께 꿈꾸던 시간

씨엠에스랩
워크샵! 워크샵은 즐거워



10월 11일, 씨엠에스랩의 워크샵이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응답하라 1999'를 콘셉트로 20년 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며 재미를 느끼고, 몽클한 감동까지 곁들여진 한 편의 타임슬립이었다. 가을밤을 뜨겁게 달군 이날의 추억 속으로 들어가본다.



소식적 줌 놀아본 언니, 오빠들

낮 동안 운동회(Team Building Activities)를 즐긴 여흥이 남아 서인지 씨엠에스랩 사우들의 표정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워크샵이 진행될 무대 위는 아직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형형색색 조명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사우들을 기분 좋게 반겼다. 서로의 눈빛도 반짝였다. 이날 워크샵의 키 포인트는 '#패션평행이론', '#90년대 뷰티', '#90년대 인기가요'. 저마다 해석한 1990년대의 의상을 입고 객석을 활보했다. 한껏 멋스럽게 힙합·복고 복장을 뽐내며 서로의 패션을 폼평하기도, 추억 돕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들려주기도 했다.

여자 사우들의 뷰티는 과감함이 돋보였다. '갈색+립라이너'로 대표되는 당시의 입술 트렌드를 그대로 재현한 여사우들이 많았고, 저마다 알록달록한 아이섀도우와 갈매기 눈썹, 보송보송한 피부결을 표현한 뷰티도 두드러졌다. 반면에 남자 사우들은 무심한 듯 개성 있는 멋을 포장하며 나름의 스웨그(SWAG)를 표현했다.



레크리에이션이 시작되자 금세 분위기가 후끈후끈해졌다. 간단한 숫자퀴즈, 업다운 게임을 함께하며 흥을 돋운 사우들은 때로는 춤으로, 때로는 유머 섞인 코멘트를 남발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열기가 고조된 가운데 이진수 대표가 단합의 건배를 제의했다. "씨엠에스랩 모두의 끼와 꿈을 마음껏 발산하기를 바라며 신나게 즐겨보자"는 말에 임직원들은 "YES 씨엠에스!"란 구호에 맞춰 잔을 들며 함성을 질렀다.

재기발랄한 끼, 저마다의 개성

뜨거워진 열기 속에 레크리에이션 사회자가 팀별 댄스 타임을 제안했다. 테이블별로 한 팀이 돼 열정적인 춤을 추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오른 탓에 과열을 걱정할 정도였다. 뒤이어 대박주 이벤트가 진행됐다.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오른쪽 사우에게 물건을 돌리는 일종의 '손수건 돌리기 놀이'였는데, 사회자가 "스톱!" 멘트를 하면 물건을 쥔 사우가 대박주를 마시는 게임이었다. 때때로 '애사심만큼 춤추기'처럼 짓궂은 주문을 하는 사회자의 말에 소식적 추었던 춤, 몸으로 기억하고 있던 춤을 추는 사우들도 있었다. 또 음악에 맞춰서 서로 춤배틀을 하는가 하면,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며 웃기도 했다. 사우들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부쩍 가까워진 모습이였다.

마지막 게임에서는 팀당 2명씩 총 20명이 무대로 나와 팀 간에 가위바위보를 하고 1등부터 5등까지 뽑힌 팀에게 상금을, 최종적으로 뽑힌 한 사람에게에는 신라스테이 숙박권과 상금이 전달됐다. 사우들은 상금을 받는 팀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축하 반, 부러움 반 섞인 박수를 보냈다.

워크샵의 백미는 장기자랑. 1990년대 당시 10대 가수 열풍을 일으켰던 'H.O.T.', '핑클'을 비롯해 영국 록그룹 'QUEEN', 남성 2인조 '육각수' 등을 재해석한 무대를 울리며 객석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패션을 그대로 재현하며 눈길을 사로잡았고, 흥겨운 춤과 가창으로 사우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기억 저편에 있던 동작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듯, 객석에서도 리듬에 따라 춤을 즐기는 사우들, 심지어 무대 앞에 모여 춤과 노래, 환호성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CMS LAB



CMS LAB 워크샵! 워크샵은 즐거워 2019



젊음은 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처럼, 행복한 순간이 모여 더 큰 씨엠에스랩을 만듭니다!



열정과 화합으로 뭉치다

장기자랑이 끝나고 초대가수 순서가 진행됐다. 사회자가 “19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를 어렵게 모셨다”는 멘트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모두의 이목이 무대 위로 쏠린 가운데 등장한 가수는 이진수 대표였다. 박장대소가 터지고 “와아~”하는 함성이 일며 큰 박수로 가수를 맞이했다. 이진수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부른 팝송 'Cotton Fields'는 고달팠던 추억도 지금에 와서는 그림자는 내용으로, 이날의 워크샵 콘셉트와도 상통하는 의미였다.



본격적으로 1990~2000년대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파티가 펼쳐졌다. 대형 스피커로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가 찌렁찌렁하게 울리며 사우들이 무대 앞으로 불러 모였고, 이진수 대표의 허리춤 시작으로 서로서로 허리와 어깨에 하나둘씩 달라붙으며 커다란 동그라미 모양이 만들어졌다. 객석을 등글게 돌며 신나는 율동을 곁들이며 '여행을 떠나요', '젊은 그대' 등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사우들은 걱정이나 스트레스 따위는 잊은 듯 거대한 용광로처럼 열정으로 푹푹 뭉쳤다. '캔디', '나는 문제 없어'가 흘러나오고, 춤판을 벌이던 사우들도 손을 맞잡고 메창을 불렀다.

“이번 워크샵, 어떤가요? 즐거운가요?”라는 이진수 대표의 한 마디에 “네에!”하고 저마다 환호하고 손뼉을 치며 어깨를 두드리는 사우들이다. 가을밤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날의 워크샵, 열정을 불태우고 하나된 마음으로 즐긴 씨엠에스랩 사우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미래가 떠올랐을까. 씨엠에스랩이 펼쳐는 내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WONIK



새하얀 설원, 눈길을 박차고 쾌도난마 같은 질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설렘과 기대를 마음 속에 안고 모인 사람들, 바로 원익큐엔씨 스키 동우회 '팀원(Team 1)'이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모였다. 버스에 올라 스키장으로 향하는 길이 즐거운 이틀이다.

눈길을 가르며 질주하는 쾌감에 빠지다

원익큐엔씨
스키 동우회 '팀원'의 스키장 체험

WONKIN v.60 | Happiness



동료와 함께 가족과 함께, 더없이 즐거운 시간

오전 6시 무렵 출발해 평창에 있는 휘닉스파크에 도착한 시간은 대략 9시 30분이었다. 주차장에 버스가 서고, 어서 빨리 눈을 밟고 싶은 사람들이 재촉하듯 앞장서 나갔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 더없이 기쁘는데, 아무래도 스키·보드복으로 갈아입고 장비렌탈을 하려다보니 점점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하다.

복장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슬로프에 들어서는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훑 훑고 지나간다. 온도계를 보니 영하 7도로 일행들이 추워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걱정하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을 밟으며 짹짹 뛰어다니기 바쁜 아이들이다.

저마다 멋진 포즈로 기념사진을 찍고 스트레칭을 한 후 안내에 따라 리프트를 타러 이동한다. 눈 밟는 소리가 상쾌하게 귓전을 때리고, 가지마다 하얀 옷으로 치장한 나무들이 경쟁하듯 아름다움을 뽐낸다. 목덜미를 파고드는 매서운 칼바람에 몸은 움츠러들지만 눈은 즐겁다. 아내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시진수 사우(생산1팀)는 "재작년부터 첫째, 둘째 아들과 스키장에 오기 시작했다"며 싱글벙글이다.

"몸이 유연해서인지 금방 배우더라고요. 올해도 스키장에 가지니 까 너무 좋아했어요. 막내 아들은 아직 어려서 아내와 함께 스파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세 아들과 함께 슬로프를 탈 생각을 하니 기대돼요!"

그런가 하면 7살, 4살 된 아이들과 함께 온 정은하 사우(제조2본부 고객지원파트)는 벌써 스노보드 6년 경력을 자랑하는 애호가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 정식으로 가르쳐주지는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스키를 같이 타도록 하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밝힌다. "아이들은 아직 눈썰매 정도만 타지만, 스키장에 오는 것은 아주 좋아해요. 내년부터는 제대로 스키를 가르쳐줄 생각입니다."



WONKIN v.60

바람을 가르는 짜릿한 속도감의 매력!

12월의 한복판, 강원도 평창은 한겨울로 들어섰다. 동해에서 넘나드는 습한 바람이 눈꽃으로 바뀌는 이즈음의 평창에는 유독 눈이 많다. 습기를 머금은 구름이 태기산, 금당산, 대미산 같은 1,000m급 봉우리에 부딪쳐 눈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맘때의 평창은 설국으로 가는 길이 된다.

올해 눈다운 눈을 보지 못한 일행들은 하얗고 매끈한 슬로프를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한다. 보드보드 눈 밟는 소리가 신기한 듯 아이들은 눈 쌓인 곳을 찾아다니고, 어른들은 점퍼를 닫아주며 신신 당부한다. "바람이 차고 미끄러우니까 막 뛰어다니면 안 돼. 알았지?"





WONIKIN v. 60 — Happiness

작년에는 스노보드를 타고 도전했다가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최길중(생산1팀) 사우, 올해는 스키를 새로이 타러 왔다고 말한다. “사실은 11살 난 아들이 스노보드를 너무 타고 싶어 해서 오게 됐다”며 멋쩍게 웃는다. “모쪼록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치지 않는 게 우선이구요.”

한편, 리프트를 타고 휘닉스파크에서 가장 높은 몽블랑에 오른 동우회와 가족들이 서너 번씩 심호흡을 한다. 상급자 코스인 이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경사가 꽤나 깊어 아찔한 기분이 든다. 내심 중급자 코스로 간 일행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다. “조심조심 안전하게, 재밌게 타!”, “아래에서 보자고!” 동료들의 응원을 받으며 멋

있게 손을 흔들며 웃어 보인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활강코스다. 한순간 쉬익-하고 가속이 붙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세를 바로잡고 슬로프의 결을 따라 내려간다. 바람도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잔뜩 긴장한 몸이지만 울퉁불퉁한 눈길에 맞춰 자세를 바꿔가며 적응해간다. 마음 속으로 “얏호!”하고 쾌재를 부르며 쏟아져 내리는 눈을 내달린다. 어느새 내려와 보니 앞서 도착한 일행들이 박수를 치며 반겨준다. 고글을 벗고 숨을 몰아쉬는데 뜨거운 온기가 스키복을 뚫고 새어 나온다. 바람을 가르며 짜릿한 속도에 몸을 내맡긴 쾌감, 이 매력에 스키장을 찾는 것 같다.

흰눈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

원익큐엔씨 스키 동우회 회원은 모두 45명으로, 이날은 20명 남짓이 참석했다. 가족과 합친 총 인원은 43명인데, 대부분 가족과 함께 온 셈이다. 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기태 사우(기술개발팀)는 올해 처음으로 스키 시즌을 맞으면서 뭔가 뜻깊은 시작을 하고 싶었던다.

“그동안 당일치기로만 왔다갔다 하다보니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가족과 함께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더 재미있게 즐겨보자 싶어서 기획하게 됐죠. 오늘과 내일 각각 6시간씩 가족과 즐길 계획입니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다가 일행이 마주칠 때마다 안전을 당부하며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라고 응원하는 사람들, 초보자 코스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스키폴 잡는 방법을 알려주던 사람들 모두 찬바람에 빨강게 상기된 표정이다. 그래도 누구 하나 따뜻한 라운지로 들어가는 이가 없다. 한결같이 “축고 귀찮다고 웅크리지 말고, 많은 동료들이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키·보드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우리 스키 동우회에 가입해 함께 즐겨보세요. 초보자도 대환영입니다. 착하고 친절하신 동료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요.” 홍기태 사우의 말에 “맞아, 맞아!”하며 화답하는 사람들이다. 해가 한가운데에 떠오르고 정오가 되자 유난히 눈길이 환하게 빛난다. 가장 아름다운 이 시간,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슬로프 위에 울려 퍼진다. _____ **WONIK**



송년음악회가 데려온

Christmas

오늘이

2019년의 클라이맥스



오늘은 원익의 판교 사옥 로비가 흡사 프라이빗한 극장 느낌으로 꾸며졌다. 단상 위에 대기 중인 악기는 금관, 목관 할 것 없이 조명에 반사되면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브-이브. 원익의 송년음악회가 열리는 오후였다. 평소 출퇴근길에 무심코 지나치는 로비가 오늘 따라 낯설게 보인다. 근사한 케이터링은 물론, 군데군데 솟아오른 스탠딩 테이블에서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진한 레드 컬러가 늘어져 있는 테이블 매트마저 연말 느낌을 더한다. 그래, 이래야 연말이지! 소리가 절로 나온다.

기쁨도 슬픔도 반짝반짝

하나둘씩 모여드는 직원들의 얼굴에도 묘한 생기가 돈다. 근사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아닌 척 하지만 오늘에 대한 설렘이 느껴진다. 꼭 다 큰 어른들이 모처럼 마음잡고 즐기는 크리스마스 파티 같다. '일로 만난 사이'의 사람들과 함께 맞이하는 오늘이 왠지 귀엽게만 느껴진다.

은은한 알콜향이 도는 애플 마티니 한 잔으로 목을 축여본다. 곁들이는 크루아상 샌드위치의 맛도 좋다. 빠질 수 없는 치즈와 올리브, 그리고 새우까지. 각종 파티용 핑거푸드들이 로비에 펼쳐진 생경한 분위기를 완화시켜준다. 경품 추첨을 위한 명함 박스에 슬쩍 명함을 흘려 넣었다. 운이 좋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을 수도 있겠지.

사진 찍기 여념이 없는 멋쟁이들 틈에서 오늘만큼 '인생샷'이 절로 갱신된다. 씨엠에스랩 식구들은 아예 '레드 앤 그린'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춰서 입고 왔단다. 눈사람 니트에 초록색 스커트, 비베스타킹까지 챙겨 신은 동료가 눈에 띈다. 꼭 작은 산타 요정 같다. '인간 트리' 같은 모습으로 로비를 활보하는 동료의 명랑함이 부럽다. 1시간가량의 계속된 임직원 소통의 시간. 음악회를 앞두고 형식적인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흡사 홈파티처럼 도란도란 말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한 해 동안 몰아친 일의 기쁨과 슬픔이 오고 간다. 적어도 오늘만은 슬픔은 없어 보인다. 잔을 부딪치고 즐거웠던 순간을, 혹은 새해를 향한 계획과 덕담들. 오늘 이곳에선 웃지 않는 사람이 술래다.



원익의 악보 위에 그려진 기억할만한 멜로디

송혜령 아나운서의 안내를 시작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송년음악회가 시작됐다. 2014년에 창단한, 뛰어난 역주와 각계각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악단 함신악과 '심포니 송(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이 그 주인공이었다. "메리크리스마스"라고 인자한 산타클로스처럼 인사하는 함신의 지휘자와 연주자들을 향해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지휘자는 우아하면서도 센스 있는 진행으로 대부분 클래식 음악에 문외한인 우리들을 부드럽게 인도했다. 특히 연주에 앞서 바이올린을 사람으로 치면 자기주장이 강한 성격이라면, 비올라는 겸손함이 미덕이라는 등 무대에 선 악기들 각각의 특성을 재치 있게 설명해준 덕분에 연주자들이 자아내는 소리들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다. 플루트는 날카롭고 높지만 동시에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소리를 내는구나, 처음으로 멜로디의 온도에 대해 감상할 수 있었다. 낯설고도 익숙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초보 관객이 듣기에도 참 좋았다. 우리는 오케스트라와 점점 더 친해지고 있었다.



오늘 송년음악회에는 으레 제공되는 간단한 리플렛이나 그 흔한 프로그램 소개도 없었다. 관객이 보다 능동적으로 공연과 호흡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고. 그리고 보니 오케스트라야말로 연말연시 기업의 화합을 도모하기에 더없이 좋은 상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합선익과 심포니송의 연주는 우리를 확실히 매료시켰고, 매 연주마다 터져 나오는 박수로 로비가 찻뽕뽕 울렸다. 이곳이 흡사 링컨센터의 로비 같다는 극찬을 한 합선익 지휘자의 말마따나 공연이 계속될수록 관객들의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 같았다.

연주의 피날레는 캐롤 메들리였다. 이름하야 '2019 윈의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 <창밖을 보라-겨울바람-고드름-흰 눈 사이로-루돌프 사슴코-징글벨>까지 무려 6곡이나 이어졌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더러는 우렁차게, 더러는 소심하게나마 가사를 따라 불렀다. 음악회의 끝은 실로 크리스마스 파티 그 자체였다.

2019년의 끝자락, 윈이라는 악보 위에 그려진 이 아름다운 멜로디에는 이용한 회장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송년음악회를 적극 추진한 이용한 회장님의 메시지에는 새해를 향해 등을 떠미는 대신 지난 한 해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다정히 스며있었다.

“먼저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오늘의 음악을 즐기게 되어 기쁩니다.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 분들로부터 음악적 가르침을 받은 덕분에 수준 높은 연주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올해 여러분께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보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한해지만 돌아해보면 2019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가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좋은 전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까. 확실한건 남은 날들이 모두 시작뿐이라는 것. 연말연시의 뜨거운 열기를 뒤로한 채, 2020년의 산뜻한 등장을 온몸으로 환영해본다. **WONIK**

세계가 탐낸 로봇 핸드

알레그로 핸드 백 번째 계단에 오르다



ALLEGRO HAND 100th

뛰어난 연구를 바탕으로
[알레그로 핸드]를 개발하여
폐사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신
공이 지대하므로 원익로보틱스
모두의 감사를 드립니다

왼쪽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배지훈 박사, 장경석 원익로보틱스 대표



상용화 7년만에 누적 판매대수 100대 달성

원익로보틱스는 알레그로 핸드 상용화 7년만에 누적 100대 판매를 달성했다. 지난 12월 13일 연구용 로봇핸드인 '알레그로핸드'의 100번째 판매 자축행사를 가졌다. 알레그로 핸드는 물건을 잡거나 아주 빠른 속도로 사람의 손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며 확장성이 높아 로봇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알레그로 핸드는 로봇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필수적인 로봇핸드로 2010년 개발되어 연구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되던 프로토타입의 로봇을 (주)원익로보틱스에서 2012년 기술이전을 받아 자체적으로 수많은 테스트와 엔지니어링 과정을 통해 상품화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KAIST,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대학은 물론 Facebook, 구글, 삼성 전자, NDVIA, 현대자동차, 토요타 등 글로벌 기업에 납품한 실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전체 판매량 중 90대 이상이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술강국에 팔려나갔다.

원익로보틱스가 알레그로 핸드를 상용화한 지 2년이 지난 2014년 스위스 로잔연방공대(EPFL) 연구진은 알레그로 핸드를 활용해 우주 쓰레기를 '파지'하는 로봇 알고리즘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수없이 많은 알고리즘을 실험해 최적화한 로봇 시스템을 구현한 이 연구에 활용된 것이 알레그로 핸드다. 알레그로 핸드를 활용하여 날아오는 물체를 잡는 연구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리지면서 유럽쪽 수요처가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알레그로 핸드는 미래 산업현장은 물론 다양한 기계 제어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데 적합한 연구용 로봇 손이다. 일례로 페이스북은 인공지능(AI)을 연구하며 AI를 실제 로봇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알레그로 핸드를 활용한다.

이 날 행사는 알레그로핸드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배지훈 박사를 초청한 세미나 형식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 행사에서는 7년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배지훈 박사)에서 기술이전해준 알레그로 핸드로 감사패를 배지훈 박사에게 직접 수여하는 뜻 깊은 장면이 연출되었다. 장경석 원익로보틱스 대표는 "100번째 판매의 의미보다 로봇핸드의 연구분야가 향후 4차 산업시대에 AI 발전과 더불어 AI의 응용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WONIK**



오른쪽, 이상엽 원익로보틱스 개발팀장

WONIK ROBOTICS

행복피 2020!

원익홀딩스 소병오 대리

19년 한 해동안 원익 홀딩스 사보기자로 활동하면서, 회사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보람했습니다. 계열사 간에 교류가 적지만 원익사보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서 계열사 소식을 보고 같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 원익 모든 계열사가 20년이 19년보다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익아이피에스 최예란 대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사보 담당자로 원익IPS의 소식들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원익IPS 임직원분들! 나누고 싶은 좋은 소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세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걱정이 깊어가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원익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원익큐엔씨 이민희 대리

원익의 핵심가치 중 소통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협조해주시는 우리 임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도 좋은 소식 등뽕 실어 나르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익엘앤디 최세현 사원

19년 한해동안 다양하고 알찬 내용을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올해 20년도에도 더욱 알차고 행복한 소식을 접할 수 있길 기대하며, 20년도 새해복 많이받으시고 모두 발전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원익로보틱스 서상원 과장

지난해 사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원익사보는 각 계열사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역할은 물론이거니와 대중지 못지 않는 재미와 유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사보 발행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해도 새로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시되는 지금입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익머트리얼즈 한정현 대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은 번영과 번성을 의미하는 흰쥐해로서 좋은 기운을 받아 원익 각 사에 근무하고 계신 모든 임직원 분들이 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마음에 새겨, 나를 돌보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익큐브 정은하 대리

지난 한 해 사보를 준비하면서 원익가족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좋았고, 제 자신도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소식이 가득한 원익인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씨엠에스랩 박지현 대리

사보를 담당한지 만 오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회사의 발전하는 모습을 알려드릴 수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보 발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피플페이지 분들과 서재원 과장님 그리고 원익 임직원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늘물빛정원 최어진 대리

2019년 사보를 통해 각 계열사와 원익 가족들의 소식을 알 수 있어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 사보를 만들기 위해 함께 정성과 노력을 쏟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사보에 더욱 행복한 소식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원익 가족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익투자파트너스 최선묵 과장

2019년에 원익의 가족이 되면서, 원투파의 사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보가 발행될 때마다 각 사의 행사들과 소식, 정보들을 접할 수 있어서 항상 옆에 있는 느낌이 들어 정말 소중한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새내기자단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에는 저희 원익투자파트너스 임직원 분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저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익 이기복 과장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룹웨어를 통해 임직원 한분한분께 전달되는 만큼, 유익한 정보와 원익 각 사의 소식이 가득 담겨있는 사보를 발간하는데 보탬이 되기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보를 제작하고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HEADLINE
71

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날 수상



73

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 SW부문CMMI LEVEL2 획득
Laser 장비 독점 수주 성공
2019 일자리창출 유공 표창



72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신규동호회 play ball 출범
원익홀딩스·진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원익홀딩스 일회용품과의 싸움, 깨끗한 사회를 위한 한걸음

NEWS FOCUS

행복 - 즐거움° 즐거움을 느껴라
WONIK MAGAZINE 2020 VOL. 60 WINTER



75

원익큐엔씨
2019 송년의 밤 개최



75

(주)원익
(주)원익 (주)위닉스 합병
(주)원익 SK하이닉스와 Business Partnership 체결

78

원익큐브
기업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LIB Cell Pouch 신 사업 진출

76

원익머트리얼즈
공채 소통 행사(4-5기)
원익머트리얼즈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차량 기증식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2020년 사무식



지난 10월 7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제10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에서 양호식 상무와 설준호 과장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양호식 상무는 플렉서블용 박막 봉지(Thin film encapsulation)기술 국산화를 통해 100% 해외 업체에 의존하였던 어려움을 돌파하는 등 디스플레이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주도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설준호 과장은 국내 최초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6세대 양산 설비 개발에 성공한 핵심 연구자로서 대면적 디스플레이 분야 장비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10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주관의 제10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을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김종환 상무와 송민기 부장, 나경필 부장이 수상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김종환 상무는 반도체 메모리 Device(DRAM, NAND 제품)의 양산 개발 및 제조 기술 경쟁력 강화 활동을 통해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반도체 장비 생산 체계 개선을 위해 SCM(Supply Chain Management) 체계를 반영하여 생산성 개선에 기여하였다. 송민기 부장은 SW Platform과 Architecture를 독자 개발하여 자체 반도체 설비 운영 SW 내재화를 성공시켰고, 제조TTM(Tool-To-Tool-Matching) 도입을 통해 Big Data 통계/분석 및 설비 건강도 측정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경필 부장은 국내 최초 3D VNAND 向 Mold 증착 PE-CVD 국산화 장비 개발을 성공하였으며 PE-CVD High Frequency 공정 국내 최초 개발/양산화 성공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Global No.1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인재들이 있기에 원익아이피에스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날 수상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장비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원익아이피에스의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산업의 역군들이 빛나는 수상소식을 전해왔다.

원익아이피에스

Headline

원익홀딩스

01



원익홀딩스 신규동호회 play ball 출범

19년 11월 원익홀딩스에 신규 동호회가 출범하였다. 이름하여 “Play Ball”,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농구를 좋아하는 임직원들이 모여 만든 active한 동호회다. 현재 당사에서 운영중인 동호회는 축구, 낚시, 테니스, 레포츠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임직원들간의 소통 촉진,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회사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번에 농구 동호회까지 출범하면서 앞으로 동호회 참여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농구 동호회의 경우, 출범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직원들과 소통하며 동호회 회원을 모으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농구동호회를 출범시킨 동호회 회장 및 총무는 “겨울 스포츠의 메인 구기 종목인 농구는 마이클 조던, 슬램 덩크, 농구 대잔치 세대에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이며,업무와 육아에 지친 동료들과 농구의 추억을 회상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관리를 위해 농구동호회를 창단하게 되었다”라며 출범 소감을 전하였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스런 소통을 유도함으로 동호회 활성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업무적 시너지까지 기대해보는 원익홀딩스의 멋진 농구동호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02



원익홀딩스·진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지난 12월 18일 원익홀딩스와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힘을 모아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가구 등 저소득층 가정 100가구에 500만원 정도의 생필품(라면,세탁세제,구강세제,비누 등)을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는 원익홀딩스 이재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원익홀딩스 누리봉사단 및 직원들,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총 40여 명이 함께 하였다.

이날 이재현 대표이사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과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회사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여서 뿌듯하며, 앞으로도 이웃들을 위한 일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으며, 최명근 진위면장은 “기부문화에 앞장서주신 원익홀딩스 임직원분들과 늘 묵묵히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힘써 주시는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한 원익홀딩스 직원들도 “회사 주위에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보니 마음이 아팠으며, 회사와 함께한 봉사활동이지만 조금이라도 그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며 2020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원익홀딩스는 이번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진위면 봉사활동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9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원익홀딩스가 지역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더욱 이롭게 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길 기대해 본다.

원익아이피에스

01



원익홀딩스 일회용품과의 싸움, 깨끗한 사회를 위한 한걸음

원익홀딩스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최근 일회용품 쓰레기 대란으로 한국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큰 몸살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박스 재사용/종량제 봉투만 사용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원익홀딩스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을 대신하여 ‘원익홀딩스 머그컵’을 배포하였다. 이는 많은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뜻을 같이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한 걸음을 디딘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사는 ‘원익홀딩스 머그컵’ 사용을 통해서 매달 약 1000개 이상의 일회용 쓰레기(컵)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더 나아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부로까지 넓혀 갈 수 있다.

현대사회에 점점 심해지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회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노력과 협조도 중요하다. 원익홀딩스의 나아가 원익차원에서 임직원분들부터 일회용 컵이나 다른 일회용품을 줄이는 실천을 기대해 본다.

반도체 SW부문CMMI LEVEL2 획득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기업 원익아이피에스(대표 이현덕)가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부문 국제 품질 인증 모델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LEVEL 2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CMMI는 美 카네기멜론 대학교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가 미국 국방성의 의뢰를 받아 개발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조직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이다.

CMMI 인증은 품질관리, 위험관리, 프로세스 개선, 요구 사항 분석 및 개발 등 총22개 프로세스영역들(Process Area)에 대해 일반적인 문서 심사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참가한 인력에 대해서도 실제로 표준 프로세스를 지켜서 수행했는지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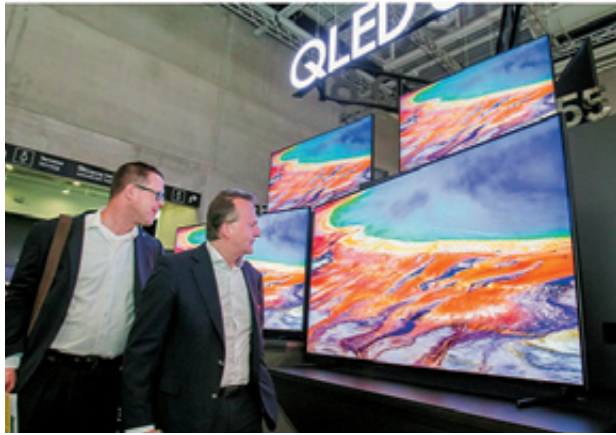
원익아이피에스는 글로벌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CMMI 인증을 준비해왔다.

이번 인증을 통해 원익아이피에스는 반도체 장비에 특화된 SW개발과 SW Quality Assurance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임을 입증하고, 고객에게 확신을 주는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부문은 CMMI 1.3 버전의 Level 3가 지금까지 국내 업체가 획득한 최고 레벨이다. 원익아이피에스는 향후 2년 이내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전반에 걸쳐 국내 반도체 설비업체 최초로 2018년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CMMI 2.0 버전의 Level3 인증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품질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Digital Transformation 을 통한 소프트웨어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원익아이피에스

02



Laser 장비 독점 수주 성공

원익아이피에스 Display사업총괄에 의미 있는 경사가 발생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 Laser장비 독점 수주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Laser장비는 원익아이피에스가 새롭게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진출한 분야로서 디스플레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2020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Laser 장비가 적용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최근 삼성이 차세대 프리미엄 TV 디스플레이 기술로 발표한 퀴텀닷(QD) OLED TV 생산에도 이 기술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익아이피에스는 Laser drilling 장비를 독점 수주하게 되었다. 참고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5년까지 13조1000억원을 투자, 아산 캠퍼스에 세계 최초의 QD 디스플레이 양산 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전면 디스플레이 방식을 적용한 스마트폰 생산에도 Laser장비가 꼭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Laser Etcher장비와 Laser Lift Off 장비를 원익아이피에스에서 독점 공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9년에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한 원익아이피에스 Display사업이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03



2019 일자리창출 유공 표창

원익아이피에스는 지난 12월30일,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기업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 포상은 고용노동부 주최의 행사로서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하는 행사이다.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 및 국민적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수상 부문은 일자리창출지원, 청년해외진출, 장년고용촉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총 4가지이며 원익아이피에스는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 민간기업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 조건은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거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 생활 균형 실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질을 개선한 기업에 해당한다.

원익아이피에스는 '16. 04월 설립 직후 580명에서 2019. 08 현재 1,360명으로 3년 만에 234% 고용성장을 이루었으며, 직원들의 워라밸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문화 구축과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 도입, 육아휴직 지원 등으로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원익아이피에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 설 예정이다.

원익큐엔씨

01



2019 송년의 밤 개최

지난 12월 26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임직원 및 가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원익큐엔씨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번 송년의 밤 행사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미루어 두었던 가족초청행사를 겸하여 대규모로 진행하였다. 임창빈 대표이사는 “올 한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준 직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며 다가올 2020년을 힘차게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준비한 자리이니 즐겨주시기를 바란다”며 개최를 알렸다. 1부 행사는 장기근속 표창 및 모범사원/공로상 시상, 축배제의, 식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장기자랑, 초청가수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직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복면가왕’ 장기자랑에는 5팀이 참여하였고, 매일 밤마다 연습하였다며 무대를 뒤집어놓은 공채 5기 최인환, 김봉준 사원이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이날 모두가 기대하던 초대가수 공연에는 미스트롯 박성연과 그룹 노라조가 초청되었고 엄청난 무대매너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2부 행사 사이사이에 진행된 레크리에이션에서는 의외로 직원들의 어린 자녀들이 넘치는 흥을 보여줘 재미를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행운권 추첨이 진행되었는데, 40여 가지의 크고 작은 경품들 중 1등 경품 공기청정기의 행운은 퀴츠제조본부 김영수 기장에게 돌아갔다. 처음으로 구미를 벗어났고 가족들을 초청하여 진행했던 만큼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많아진 인원만큼 몇 배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2019년을 잘 마무리한 만큼 2020년도 희망찬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란다.

(주)원익

01

(주)원익 (주)위닉스 합병

2019년 12월 10일 (주)원익과 (주)위닉스의 합병이 완료되었다. 본 합병을 통해 (주)원익은 수입, 유통영업에서 탈피하여 반도체 부품의 직접 개발 및 제조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안정적,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주)위닉스(주)원익 구미지점) 또한 상장회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대외 인지도 향상 및 내부통제 강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래처에 대한 대외 신인도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장홍식 대표이사의 경영 하에 (주)원익은 계열사간 통합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및 재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02

(주)원익 SK하이닉스와 Business Partnership 체결

(주)원익 반도체사업팀은 2016년 CyberOptics社 대리점 계약을 통해 반도체 제조관련 산업에 제품 공급을 시작하여 시장 확대 및 고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반도체 Chip 제조사인 삼성전자, Display Panel 제조사인 LGDisplay 그리고 장비제조사인 원익IPS, SEMES, ASM 등에 WaferSense 제품을 공급 중에 있으며, 이후 가스분석장치, Wafer ID Leader 등 제품군을 추가하며 해외의 품질 높은 제품을 국내 시장에 소개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SK하이닉스와 Business Partnership을 체결함으로써, 협력사 지위를 획득 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주)원익은 Global TOP3 Memory 반도체 제조사인 SK하이닉스에 사업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 하였다.

반도체사업팀은 잠재력이 있는 공급사들과 함께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며,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 증대 및 시장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원익머트리얼즈

01



공채 소통 행사(4-5기)

2019년 11월 1일부터 1박 2일 동안 공채 5기 신입 직원들이 여러 선배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경기도 가평에서 의미있는 소통 행사를 가졌다. 원익머트리얼즈에서는 공채 신입사원의 조기 적응을 돕고 선배 사원과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위해 매년 선후배간 소통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회사에 적응을 마친 선배 사원들이 올바른 기업문화를 전수하고 성공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후배 사원들이 말은바 위치에서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02

원익머트리얼즈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2019년 12월 1일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받음으로써 2014년 12월 이후 5년 연속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다. 금번 재인증은 총 387社 중 최상위 등급으로 심사에 통과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익머트리얼즈는 다양한 복리후생 및 임직원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회사로서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03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차량 기증식

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12월 4일 양청사업장(본사)에서 업무용 차량 기증식을 진행하였다. 원익머트리얼즈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차량은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 기증 되었으며, 앞으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도배 봉사 지원금 및 가족의 날 행사 후원금 기부' 등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공헌에 앞장 서고 있다.

04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원익머트리얼즈 임직원들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지난 12월 7일 충북 혜능보육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원익머트리얼즈의 후원금 700만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치 2,300kg를 정성껏 담아 청주 22개의 지역 아동센터와 저소득 계층 40가구에 전달되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예정이다.

05



2020년 시무식

지난 1월 3일, 새해를 맞아 원익머트리얼즈 임직원들이 시무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행사는 상호간 새해 인사로 시작되었으며, 각종 시상 및 포상, 승진자 사령장 수여, 중점 추진 전략, 그리고 최근 시황의 위기와 기회 요인에 대한 대표이사 말씀 순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시무식은 지금까지의 즐겁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컴퍼니 미팅이 아닌 세계 경제를 비롯하여 반도체 시황, 동종 업계 비교 분석,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 및 역량 등 2020년을 돌파하기 위한 의기를 투합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원익큐브

01

기업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원익큐브는 기업문화 활성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타운홀 미팅은 분기마다 임직원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시간이다. 랜덤 추첨으로 질문 사항에 답변을 하거나, 평소 궁금했던 사항 및 개선하고 싶은 점들을 전사가 함께 공유한다. 힐링프로그램도 임직원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특히, 지지향 북스테이 프로그램은 임직원에게 인기가 좋다. 파주에 위치한 지지향은 도서관과 숙소를 결합해 놓은 호텔형 게스트 하우스로 20만권 이상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다. 원익큐브 임직원은 지지향에서 자유로운 독서와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근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 초성 퀴즈, 년센스, 시사 상식 등 퀴즈문제를 내고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원익큐브의 한 직원은 “매 주 퀴즈가 기다려지고, 소소한 재미를 느낀다”고 전했다. 원익큐브는 기업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임직원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다.

02

LIB Cell Pouch 신 사업 진출

원익큐브는 미래성장동력으로 LIB Cell Pouch Film 신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IB는 그동안 소형 IT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최근 몇 년 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겉을 감싸는 파우치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다.

지난해 12월 원익큐브가 100% 출자한 ‘원익비엠텍’ 신규 법인이 설립됐고, 특허권 양도 계약을 완료했다. LIB Cell Pouch Film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21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익큐브는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매주 회의를 진행한다. TF팀 구성원들은 LIB Cell Pouch Film 사업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원익큐브는 신 사업에 약 1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LIB Cell Pouch Film 제조 공장은 20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생산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산능력은 10백만m2/년으로 단계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중국 Electronic low-end 시장 진출 후, 글로벌 EV/High-end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LIB Cell Pouch 신 사업은 원익큐브의 장기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anks for U

함께 만드는 여러분은 원익인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호를 읽고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보내실 곳 - 사보팀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

people_page@naver.com

보내실 때 - 코너제목/ 이름/ 소속/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주세요.

모든 콘텐츠 참여는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바로](#) 보내세요. *문자보내기- [전화번호 입력창](#)에 전화번호 대신 [피플페이지 메일](#)을 넣어주세요. 코너 추천·사연은 기한 없이 보내주세요.

지나호 참여자

스타벅스 상품권 2만원권 <13명>

보스vs리더 김동현 (원익아이피에스)
최형섭-추천

명단공개 전경희 (원익아이피에스)

멘토링 백성현 (원익)
김상연

그웨이팀 오윤영 (원익머트리얼즈)
김명수
신재인
김 솔
김재호
임종영
정형욱

원익덕후 이상훈 (원익홀딩스)

일러스트 액자

공감라운지 양기철 (원익큐엔씨)

사진 액자

원익히어로 공적상 (씨엠에스랩)

응모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박영현 (원익아이피에스)

김민석 (원익아이피에스)

이인규 (원익아이피에스)

정임숙 (원익큐엔씨)

사보 후기

안녕하세요. 원익아이피에스 박영현입니다. 사진촬영이 사내 제한되어 메일로 작성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잘 구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3page



67page



70page



73page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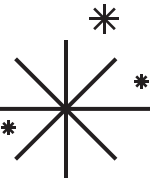
사보 곳곳에 원익인에게 福을 나눠주는 福 마우스 5마리를 찾아보세요.

보내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福 마우스를 찾아서 3. 9일까지 보내주세요.

사보를 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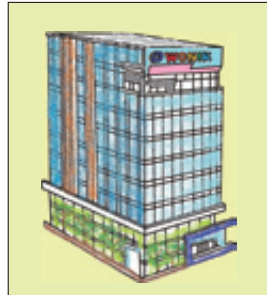
사보를 보셨다는 인증샷과 코멘트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카라멜마끼아또 3. 9일까지 보내주세요.



표지 컬러링이벤트

지난 59호 <원익인> 컬러링 이벤트 당선작을 공개합니다.
 원익 판교 사옥이 알록달록 색다른 옷을 입었네요.
 표지에 나만의 색을 입혀 컬러링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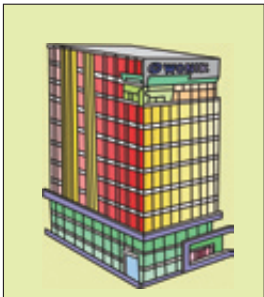
원익머트리얼즈 박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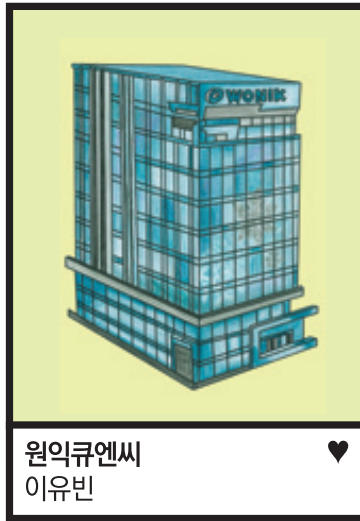
원익머트리얼즈 김무성



원익 안희태



원익머트리얼즈 황충



원익큐엔씨 이유빈



원익투자파트너스 박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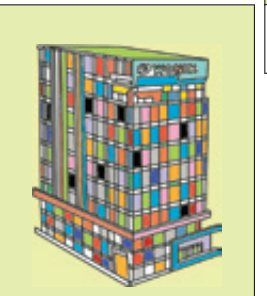
원익홀딩스 서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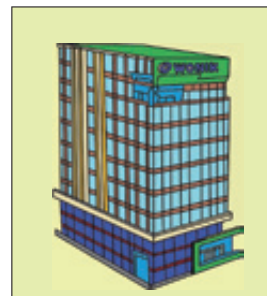
원익머트리얼즈 한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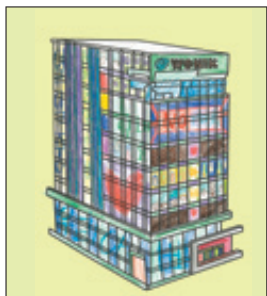
원익머트리얼즈 고근희



원익머트리얼즈 권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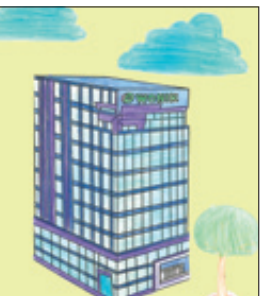
원익머트리얼즈 김강민



원익머트리얼즈 신진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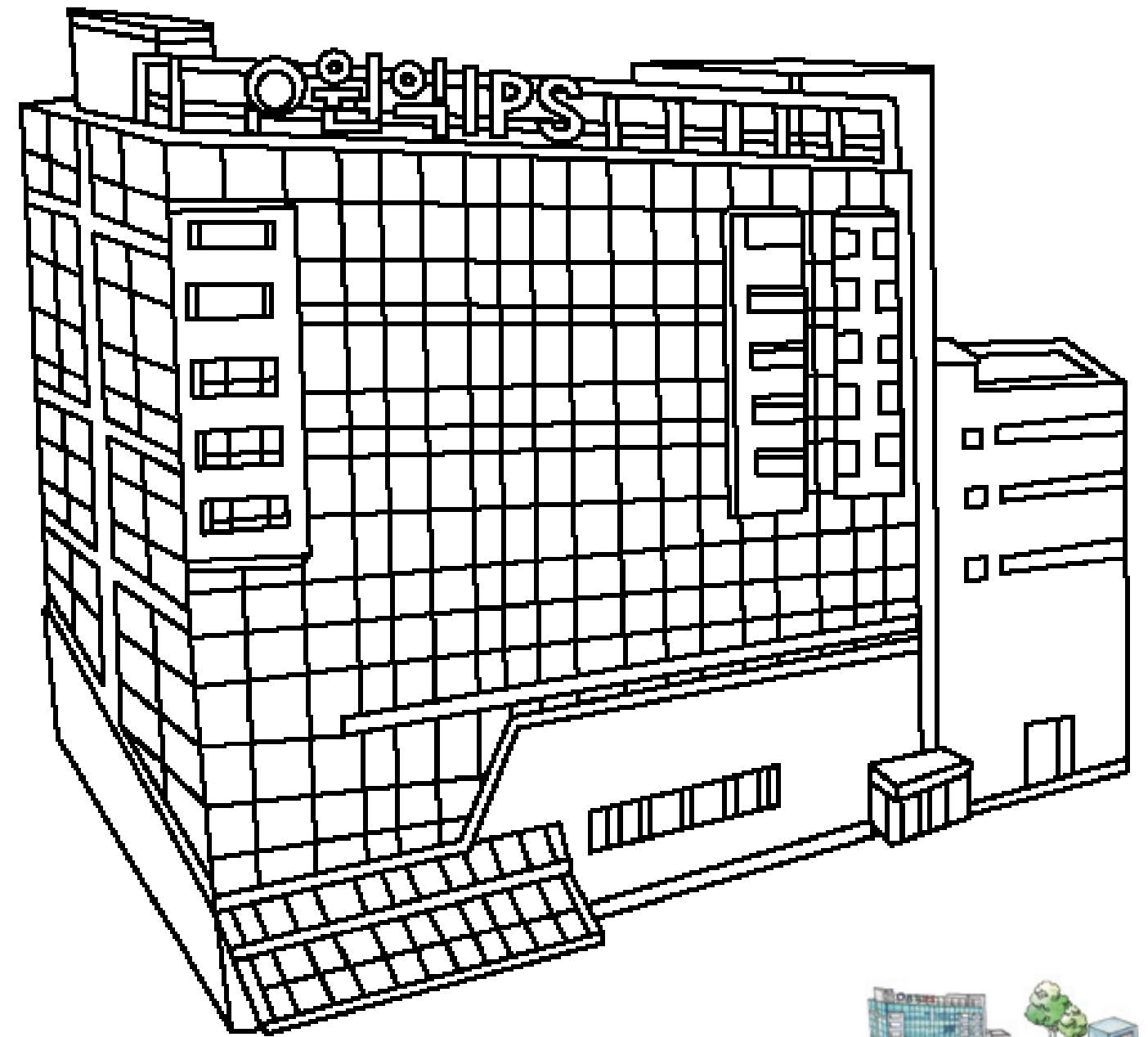
원익머트리얼즈 신진섭



원익 안희태

심리학계에서는 예전부터 치료에 그림과 색칠 놀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색칠을 하는 작고 정밀한 움직임은 대뇌 피질 영역을 자극해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며, 색을 칠하는 것만으로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큰 사회의 구성원으로 속해있는 지금, 자신만의 뚜렷한 성취나 성과를 느끼기가 어려워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흔들리기 쉽다. 이런 심적 부담감을 컬러링으로 채워보세요. 앞으로 제공하는 원익 각 사 드로잉을 자신만의 색깔로 채우며 어렸을 적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건 어떨까요?

Coloring



채색하여 보내주시는 그림은 다음호에 실어드립니다.
 표지에 선정된 분께는 스타벅스 음료권 5매를 보내드립니다. 사보에 게재된 분께는 음료권 2매씩 보내드립니다.

60 VOL.

2020년 경자년은 흰쥐띠의 해입니다.
흰쥐는 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쥐로,
우두머리 쥐이자 매우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라고 불리는 경자년.
역사를 돌이켜 봤을때 혁명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폭발하는 에너지가 가득한 해로,
망설이는 일들이 있었다면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으로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당당한 모습을 지닌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덧 60호를 맞이한 <원익인>도 더 멋진 모습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어가겠습니다.